



개성공단 폐쇄 3년...입주기업 마르지 않는 눈물 4



박동욱 사장 "현대건설 '그레이트 컴퍼니' 구축" 16

코스피(8일 전주 대비) 2177.05 (-26.41P)  
코스닥 728.74 (+11.82P)  
환율(달러당 원화) 1123.90 (+5.1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86% (-0.017%p)

## 스페셜 리포트

# '新산업 허브' 선점하는 자, 미래 경제 지배한다

### '허브 선점 → 영향력 증폭 → 경쟁사 무력화' 패권공식 미래 생태계 주도권 잡기 글로벌 기업들 경쟁 갈수록 치열

글로벌 산업계의 '허브(Hub)'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허브는 바퀴의 중심축을 뜻한다. 바퀴살이 허브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新)허브를 먼저 점령한 국가나 기업은 향후 수십 년간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자격으로 미래 경제 패권을 잡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추종자(follower)의 입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허브 선점→영향력 증폭(amplify)→도전 억제(deter)→경쟁

사 무력화(degrade) 공식을 따르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내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 구글과 아마존이 주도하는 시장에 출시표를 던진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에서 갤럭시홈을 깜짝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AI 스피커를 출시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미래 스마트 홈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집안 가전제품뿐 아니라 자동차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AI 스피커를 통해 미래 생태계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표 소프트웨어 IT 기업인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하드

웨어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소프트웨어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이들이 다른 제조업체를 인수하거나 회사 내에 하드웨어 제조·연구 조직을 만들며 AI 스피커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자사 제품이 가장 내 허브로 자리를 확고히 다지면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 하드웨어 업체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LG전자가 4번째 적자인 스마트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CES 2019'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은 가전과 전장 사업과 연관된 기

술"이라며 "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수소경제 허브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차세대 자동차 업계의 성패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와 토요타 등 독자적인 수소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누가 시장 표준화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차 생태계의 허브가 결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선 변화하는 세상의 허브를 선점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몇 십년 후에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수익형부동산 '공공'... 오피스텔도 꺾였다

### 서울 매매가격지수 첫 하락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02.02로 전월의 102.15보다 0.13포인트 떨어졌다.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2월 매매가를 100으로 잡고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100이 넘으면 기준 시점 대비 가격 상승을, 100 미만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역별로 보면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의 하락 폭(-0.168%)이 가장 컸고, 도심권(-0.165%), 서북권(-0.136%), 서남권(-0.088%)과 동북권(-0.08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00.56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예정된 공급물량이 많을 뿐 아니라 지난해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한 매매가격에 비해 월세 인상 폭은 제한되면서 수익률이 하락한 것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강동전세 속출...역전세난 우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 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란 '강동전세'마저 나타났다. 1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관련기사 9면

연합뉴스

## 한국, 美에 보복관세 길 열렸다

### WTO, '세탁기 분쟁' 6년 만에 年 953억 양허정지 허용

### 산업부, 국내경제 고려 품목 등 검토

미국의 부당한 세탁기 수입 제한 조치에 한국이 합법적으로 보복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재판부는 9일(한국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 원, 2017년 기준)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양허정지는 폐지된 관세를 부활시키거나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부당한 수입 제재에 한국이 6년 만에 합법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WTO가 허용한 것이다. 한국이 WTO 재판을 통해 무역보복을 용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세탁기 분쟁은 2013년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가 미국에 덤핑으로 수출됐다"며 각각 9.29%,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은 부당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1.85%의 상계관세까지 부과받았다.

우리 정부는 그해 9월 '부당한 조사방식에 의한 수입제한 결정'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3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패널 판정과 상소판정에서 잇따라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직후 한국은 미국에 2017년까지 연간 7억11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미국 측은 반덤핑·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18년 WTO 중재재판부에 양허정지 규모의 타당성을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허용받은 양허정지 규모는 2016년 계획의 12%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세탁기 시장 상황이 2013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LG는 이미 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낮췄고 삼성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 현재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고려해 구체적 양허정지 품목과 액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TV·車·조선... '벼랑끝' 몰린 주력산업

### LCD TV 출하, 中에 1위 내주고 자동차산업도 3년 연속 내리막길

한국 경제를 책임져 왔던 주력 산업에 줄줄이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세계 LCD TV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고, 휴대전화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 밑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10면

고임금과 저효율에 발목잡힌 자동차산업 역시 3년 연속 생산량이 하락해 멕시코에 뒤졌다. 구조조정 영향으로 조선업 생산능력도 10년 전 수준으로 축소됐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전 세계 LCD TV 출하 대수는 모두 1억5216만5000여 대

로, 이 가운데 중국 업체가 31.9%(4856만 1000여 대)를 차지했다. 한국은 4658만 4000여 대(30.6%)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이 LCD TV 출하대수에서 한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산업에도 위기감이 감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가 작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34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0.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중국 점유율은 2013년 20%로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4.9%, 2017년 2.1% 등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점유율이 1%를 밑돌았다.

한국자동차 산업 규모도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02만9000여 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준 지 2년 만에 멕시코에 6위 자리를 내주고 자동차 생산량 세계 7위 국가로 하락했다.

조선업 생산능력은 통계 집계(198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조선업계와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보면 지난해 선박 및 보트건조업 생산능력지수는 69.2로 전년(83.4) 대비 17.0% 하락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71.4) 수준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北보다 줄어든 '아기 울음소리'... "5년내 총인구 감소"

## 통계청, 인구 특별추계 전망

유례없는 저출산에 이르면 5년 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발표하는 2017~2027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앞당길 예정이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기준으로 2028년으로 전망했다. 또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 2024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상황은 2016년 추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만,

합계출산율 0.96~0.97명 집계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아 인력 부족 등 경쟁력 악화 우려 "60년 후 생산가능인구 北이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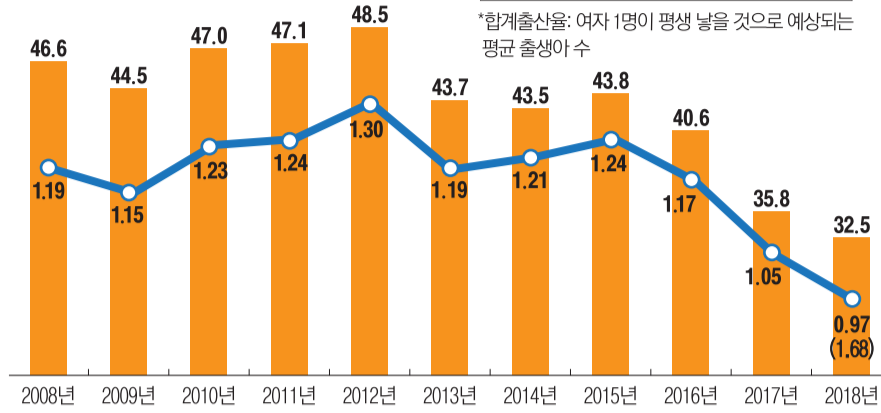
세계 꼴찌로 추락한 출산율이 문제다. 당시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선 합계출산율이 1.12명이었는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한다.

출생아 수도 위험수위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월간 한정

## 합계출산율 추이

\*2018년은 잠정치, 괄호 안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



(대한민국헌정회 발행) 기고문에서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명 수준이고, 최근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북한의 연간 출생아 수 추정치인 30만 명대 중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은 총인구가 우리의 절반이지만, 합계출산

율(2.0명)이 두 배다. 이대로라면 50~60년 뒤엔 북한에 생산가능인구(16~64세)를 추월당하게 된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더 큰 위기다. 현재의 출생아 감소는 20~30년 뒤의 가입여성 감소로 이어져서다. 뒤늦게 합계출산율이 회복해도 가입여성 자체가

적어 출생아 수는 회복되기 어렵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인구 모멘텀'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가 100년 뒤 사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 증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산업경쟁력 악화, 인구 고령화와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이미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 인구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길게 볼 것도 없이 저출산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며 "당장 수년 내에 출산 관련 산업들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생존하는 산업들은 일본처럼 구인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강 편의점 11곳이 새 주인을 찾는다. 미니스톱으로 운영됐다가 계약이 완료된 점포들이다.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시행되고 한국 미니스톱 매각이 무산되면서 '출점 절벽'에 처하게 된 편의점업체 대부분이 출점 준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 공원 내 11개 편의점 매장 운영권 입찰이 조만간 공고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3월 정상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최고가를 불러 낙찰된 업체는 3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한강 편의점은 총 29곳이다. GS25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씨스페이스와 현대유통(개인), 미니스톱 가맹점이 각각 2곳이다. 이번 입찰에 나올 점포는 한강공원 노점상 연합체 '한드림 24'가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하던 난지점(2곳), 독섬점(3곳), 여의도점(4곳),

반포점(2곳) 등이다. 이 11곳의 매출은 2016년에만 124억 원을 올릴 정도로 알짜로 꼽힌다. 브랜드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한강 편의점의 장점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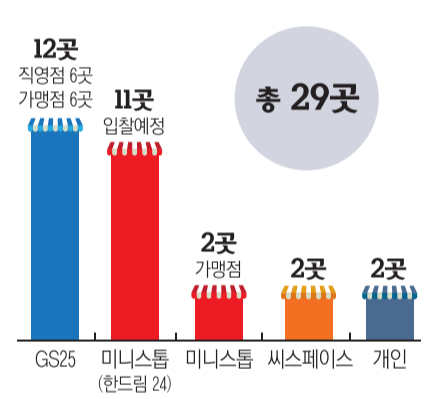
한드림24는 2008년 서울시와 2017년까지 점포를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점주들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1년간 매장을 무단 점유·운영했고, 서울시는 시설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설물 보수 공사를 이유로 곧바로 편의점 사업자 입찰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몸값은 더욱 치솟았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체들이 점포 100m 내 신규 출

## 미니스톱 매각 무산 등 신규 출점 절벽에... 편의점업체 '한강 황금알' 쟁탈전

### 이달 매장 11곳 입찰 공고 전망 이마트24 등 참여 긍정적 검토

#### 한강 편의점 운영 현황



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도입했고, 지난달에는 한국미니스톱 매각마저 중단됐다. 점포 확대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한강 편의점은 각 업체들이 더욱 군침을 흘릴 만한 대어로 떠올랐다.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이마트24다. 당초 사업 참여 계획이 없던 이마트24는 출점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한강 편의점 입찰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트24는 한강 점포를 확보할 경우 현재 동작대교에서 운영 중인 '구름·노을카페'처럼 차별화된 컨셉트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출점해야 할 환경이 나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출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에 매장이 없는 세븐일레븐 역시 공격적인 전략이 점쳐진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미니스톱 인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손맛을 본 세븐일레븐이 한강 편의점 확보로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스톱 인수를 위해 쌓아둔 실탄도 두둑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한강 편의점의 마케팅 효과를 평가하면서 입찰 참여를 시사했다.

업계 2강인 CU(씨유)와 GS25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홍보 효과보다는 실익을 우선한다는 원칙론을 밝히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GS25 관계자는 "외형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위주의 출점이 기본 전략"이라면서 "무리한 참여보다는 수익성을 따진 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U 역시 "무리하게 뛰어 들지 않고 투자 대비 효익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사업주도, 근로자도 행복한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소득 사업주, 임금배분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고용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삼성 ‘빅스비’ 쓰면서 다른 회사 TV 사시겠습니까?”

“빅스비(삼성전자) 인공지능(AI)스피커를 스마트홈 허브로 쓰는 가정에서 LG전자 TV나 에어컨을 선택 사시겠습니까?”  
5G(5세대) 이동통신의 본격적인 개화와 맞물려 기업 간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허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전자업계 임원의 설명이다. 스마트홈 기기는 IoT를 기반으로 일반 가전제품뿐 아니라 가스, 냉난방, 조명 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원격 제어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삶의 질과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안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미래 허브 선점 전쟁

IoT 허브되면 관련 브랜드 충성도 ↑  
냉장고에서 TV·스피커·아파트까지  
가전업계 넘어 IT·건설업도 도전장  
AI기기 **다품종·다플랫폼** 시대 열려

파커다. 스마트홈 구현을 위해 고가의 TV나 냉장고를 구매할 필요 없이 비교적 저렴하게 AI 스피커를 구매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AI 스피커 ‘갤럭시 홈’을 선보이면서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빅스비 스피커를 내놓는다. 네이비는 샤오미·LG전자 등과 제휴를 맺고 ‘클로바’ 스피커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KT ‘기가지니’, LG전자 ‘엑스봄 AI 씽큐’, 카카오 ‘미니’, SK텔레콤 ‘누구’ 등의 스피커가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허브 쟁탈전에 외국기업들도 가세했다. 구글 홈 미니, 아마존 에코, 애플 홈팟 등이 국내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 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는 스피커”라며 “허브 춘추전국시대가 지나면 안드로이드폰처럼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지배 현상이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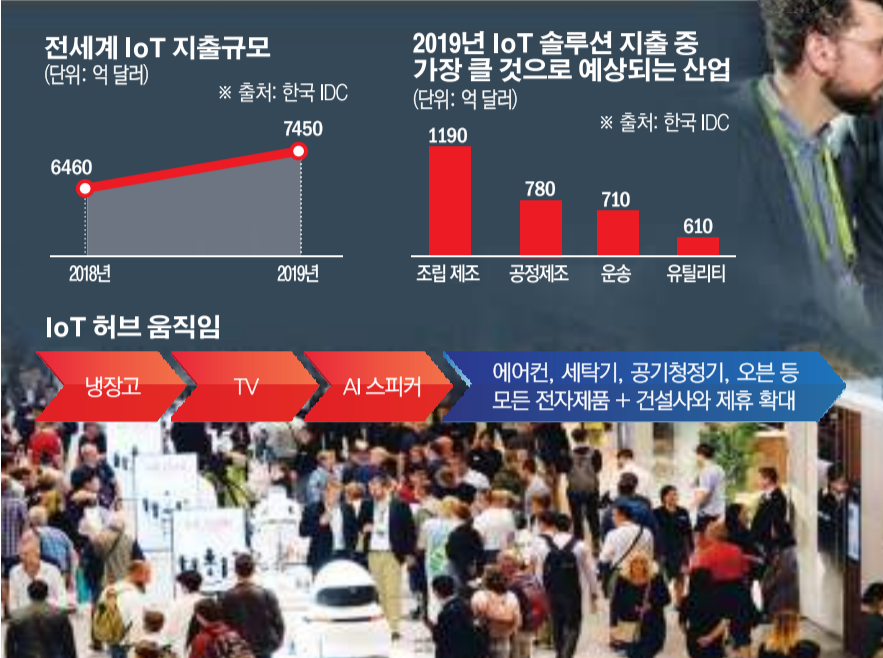
가전제품이 아닌 집 자체에 스마트홈을 심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국내 주거문화를 겨냥한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 부동산 개발 업체와 손잡고 현지 최신 주상복합 단지에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 건설, 포스코ICT와 함께 각 사의 IoT 플랫폼을 연계한 토털 스마트홈도 구현하고 있다. 카카오는 GS건설·포스코건설의 아파트에 ‘카카오아이’ 플랫폼을 적용하는 한편 챗봇·음성으로 스마트홈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도 건설사와의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IT 시장분석 전문기관 한국IDC는 전 세계 IoT 지출 가이드 보고서에서 IoT 시장 규모가 올해 7450억 달러(약 8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지출액 6460억 달러(약 722조 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올해 전 세계 국가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257억 달러(약 28조 7400억 원)를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업계 고위관계자는 “가정 IoT의 허브로 자리잡은 기기는 최소 5년 정도는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각종 관련 제품 판매에서부터 빅데이터 수집까지 큰 역할을 하게 될 전 세계 업체들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과거 가전업계는 냉장고가 IoT 허브가 될 것으로 봤다. 24시간 가동되는 제품이 자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TV는 물론 에어컨,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도 AI를 장착해 스마트홈 허브 후보가 됐다. 하지만 최근 가장 각광받는 제품은 AI 스피

## “먼저 주도한 곳이 세계표준” 현대차 ‘수소 산업’ 큰 그림

경쟁자 **日** 토요타는 **車** 개발에 집중  
**韓**, 유럽과 맞손 선박·철도로 확장

차세대 자동차 업계의 명운은 수소연료 전지차(수소전기차)에 달려 있다. 아직 수소 경제 사회의 초기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표준화 선점이 향후 허브 패권으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는 여전히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즉 전기를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써야 한다는 한계가 남아있다.

반면 수소는 무한하다. 무엇보다 전기분해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진다. 완충된 수소전기차를 차고에 주차하면 여기에서 전원을 끌어내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뽑아 쓸 수도 있다.

지나해 기준,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은 일본 토요타와 한국의 현대차가 양분하고 있다. 토요타 수소전기차 ‘미라이’와 현대차 ‘넥쏘’의 기술력 차이는 거의 없다.

현재 토요타 미라이는 전기모터 출력 113kW를 내는 반면, 현대차 넥쏘는 120kW를 낸다.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토요타 미라이(502km)보다 현대차 넥쏘(590km)가 소폭 앞서 있다. 토요타가 이를 간과할 리 없다. 현재 개발 중인 미라이 후속 모델은 7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목표로 삼았다.

문제는 기술력보다 시장 선점이다. 초기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판매가 많아야 한다. 충전방식과 안전기준 등 국제표준을 먼저 쥐고 이를 바탕으로 대량 양산체제를 갖춰 핵심 부품의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다. 현대차가 독

일 아우디와 수소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토요타는 거대 시장인 중국 정부와 손잡았다. 중국의 수소전기차 보급 및 활성화를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에 집중한 토요타와 달리 현대차는 산업 전 분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연간 1000만 대를 판매 중인 폭스바겐 그룹과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에 협력하면서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선박과 철도, 산업기계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토요타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일본 정부가 주도한 ‘수소전기열차’에 대해 기술협력을 거절했지만 현대차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현대차는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연간 70만 기 수준의 연료전지 스택을 생산하고 이 가운데 20만 기는 외부에 판매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래 수소전기차 패권은 초기 시장 확대에 달려 있다. 시장을 선도 중인 한국과 일본 메이커의 기술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향후 시장 주도권은 기술력은 물론 경영 전략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는 “토요타와 현대차가 근소한 격차를 벌이는 가운데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치킨 게임’의 경우 양사 모두 출혈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사 공동의 국제표준화 제정 등이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자연에 담은 에너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늘의 태양과 신선한 바람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그리는 미래, 한국중부발전이 만들어갑니다.

**KOMIPO**  
한국중부발전

# “40명 직원 뿔뿔이 흩어져...3년째 ‘희망고문’ 착잡”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물**

시설투자비 100억 묶이며  
백수건설 신세 냉가슴앓이

강창범 오오엔윅닷컴 대표

기술이든 게 전부예요. 정권도 바뀌고, '적폐청산'이다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개성공단만 그대로인 건지.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정권 바뀌고 더 버틸 힘이 없어진다고 한다. 이전 정권과 방침이 다를 줄 알았지만 '희망고문'은 2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강 대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를 기원하며 매일같이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다.

“북미 협상이 잘돼서 개성공단에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나 체육 교류도 이어져서 평양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강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위 간사를 맡았고, 오오엔윅닷컴은 의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가동중단 후 누적손실 30억  
30여 명 직원 중 6명만 남아**

조경주 석촌도자기 대표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해 온 조경주 석촌도자기 대표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조 대표는 가동 재개가 늦어져 재정적·정신적으로 많은 손해와 고통이 뒤따르고 있고, 현

재 최소 인원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호소다.

“정치적 이유로 정부가 7번이나 방북 신청 반려를 했어요. 3년간 개성공단에 있는 생산라인 시설물이 녹슬어 버리고, 상품개발도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올해가 되면 재개될 줄 알았는데, 너무도 막막합니다.”

생산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품 판매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수익이 없으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디자인 개발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석촌도자기의 연간 기본 손실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3년째인 올해 손실액까지 무려 30억 원. 이 기간 정상 매출의 5%도 안 되는 국내 사업 수익으로 간신히 하루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조 대표는 30여 명이던 직원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현재 6명의 필수 인력만으로 회사를 운영 중이다.

“1983년 세워져 36년 된 도자기 회사가 단 3년 만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정부 보상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경 분리 원칙을 지키는 개성공단 재개뿐입니다.”

조 대표는 현재 인천 개성공단 입주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건비·언어·기술 모두 갖춰  
수작업 생산에 최적의 장소**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1호 입주)

김학권 재영솔루텍 대표이사 회장은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되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가동하는 등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전자부품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금형과 카메라모듈 조립사업 등을 주로 하는 재영솔루텍은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제품을 공급하는 유망기업 중 한 곳이다. 수작업이 중요한 업체 사정상 인건비 절감을 위해 2004년 국내 첫 개성공단 입주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성공단 생산라인은 재영솔루텍 공정에 최적화돼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곳이에요. 베트남에서 겨우 손실을 메우지만 인건비를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반드시 다시 열려야 합니다. 인건비·언어·기술력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최상의 조건이예요. 올해는 반드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으면 합니다.”

김 회장은 2009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재훈 기자 yes@

**2017년 10월**  
정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4차 방북신청 유보조치

**12월**  
통일부 정책혁신 위원회 "개성공단 중단, 차 전 대통령 구두지시"

**2018년 2월**  
정부, 개성공단기업협회 5차 방북신청 유보

**8월**  
정부, 개성공단기업협회 6차 방북신청 유보

**2019년 1월**  
정부, 개성공단기업협회 7차 방북신청 유보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환점 돼주길”

**신한용 개성공단협회장**

‘중단 4년’이라는 말 없어야

단정한 양복 차림의 신한용(59)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개성공단 폐쇄 3년,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신 회장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였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그는 어떤 물음에도 막힘이 없었다.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돼 공단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기분이 어떨 것 같냐'는 물음에는 잠시 침묵했다. 목이 맨 신 회장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북한 노동자들과 같이 눈물 흘리지 않겠냐”고 짧게 답했다. 어떤 답보다 큰 울림이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 3년의 소회를 묻자 신 회장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3년까지 왔다”며 “‘중단 4년’이라는 말은 정말 없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작년 한 해를 “물러코스터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4·27, 5·26, 9·19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적 사건이 이어졌고, 신 회장은 9·19 남북정상회담 때 2박 3일 일정으로 동행했다.

“3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신 회장은 답답함과 기대감이 공존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인터뷰에서 그는 올해 안에

공단이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18년을 넘긴다고 해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리라는 생각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가 바뀌었다. 신 회장은 “모든 일이 원샷에 해결되진 않는 것 같다”며 “그러나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는 생각지 않고,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온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가 지난달까지 포함해 7차례 방북 신청을 한 것에 관해 그는 “7번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방북 승인은 7번 모두 유보됐다. 신 회장은 “남북 문제가 개성공단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의 태도를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국민을 향해서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방북 신청 기사 밑에 ‘왜 또 가려고 하냐’는 악성 댓글이 달리곤 한다”며 “기업인으로서 남북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인데 관념에 따라 재단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조치보다 개성공단이 먼저 열리면 북한의 개방을 이끌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변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재가동TF 만들고도...정부 “지켜보자”

**원론적 대답만 되풀이 ‘신중론’  
공단 기업인 방북 번번이 제동**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공단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계속 유보적이다. 현재로서는 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8개 기업의 입주와 함께 출범했다. 입주기업은 폐쇄 직전 123개로 늘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는 32억6400만 달러, 북한은 3억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가동과 폐쇄라는 외출타기 같은 위태로운 모습을 지속해 왔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순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게 한계로 지적된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반발한 정부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현재에 두고 온 공장설비와 자산들을 점검하러 가겠다는 요청에도 정부의 입장은 ‘유보’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

으로 추가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공단 재개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조성했으나 빛장은 여전히 잠긴 상태다.

교착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재개의 실마리는 27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도 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개성공단은 100만 평 규모의 1단계 사업만 진행된 상황이며 당초 계획대로 2000만 평으로 확대되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공단 재가동이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백대현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강산-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조건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우선 정상화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북미 내주 초 포 3국서 협상 재개... 한미 정상 곧 조울

### 비건 “北 과거보다 적극적” 2박3일 협의 마치고 귀국 靑 “북미 터놓고 얘기한 자리”

북미는 내주 초 아시아 제3국에서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전화 통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조만간 회담할 예정이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조 본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의 실무협상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후 이날 출국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실무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차기 실무 협상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3일 한국을 찾아 한국 측 정부 인사들을 만나 대북 협상 전략을 사전 조율한 뒤 6일 평양으로 가 8일까지 평양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 및 의전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양측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비핵화 이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집중적으로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비건 대표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논의가 “생산적이었다”면서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며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건 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일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고 소개하며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라기보다는 북미 서로가 뭘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

## 與 “벤처기업 성장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 조정식 정책위 의장 기자간담회... “기업 상속·증권거래세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사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진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 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정책위 내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해한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장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허부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입법 정책 방향에 대해선 “민생·개혁·혁신·분권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김용균법 후속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입법’, ‘퇴직 급여제 적용 확대’, ‘유치원 3법’ 등 조속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등 중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65%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자유한국당 당권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의원(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호영·심재철·정우택 의원이 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화 통화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혀 공동 입장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흔들리는 보수 야권

### 한국당 전당대회 연기 ‘내홍’... 바른미래 노선 갈등 표면화

보수 야당이 흔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새 지도부를 뽑는 2·27전당대회를 보름 앞두고 대회 연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격랑에 휩싸였고, 바른미래당은 창당 1주년을 맞아 정체성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당 노선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6명은 10일 2·27전당대회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며 “연기가 결정된 후에는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롤 미팅을 열어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15일 입당 직후 단숨에 보수 야권 최대 기대주로 떠올랐지만, ‘박근혜 표심’이 고스란히 그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7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명 변호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골자의 ‘육중 박심’을 전하면서 친박계의 표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

온다. 당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안 3월 10일을 전후해 친박 신당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연관 검색어에 배신론과 한계론이 등장했다. 어느 당권 주자는 황교안이 진박 논란에 휘둘릴 약체 후보라고 폄하한다. 분명히 하는데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 정치인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이 투철해야 하고, 새로운 정치는 이를 실천하는 의지와 열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연 연설회에선 ‘공동 창업주’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개혁보수 정체성 확립 주장에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유 전 대표도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손학규 대표는 연설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솔직하게 다 열어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견 충돌도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을 만든 사람인 유승민 의원이 참석해 끝까지 있지 않았는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은 유 전 대표와 이를 공공연히 추진하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당의 진로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김하니 기자 honey@

#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 국내 손해보험업계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
-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
-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
-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
-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

# 제값 못 받는 韓 공산품... 수출물가 대만보다 17P 낮아

## WTO '공산품 수출·수입 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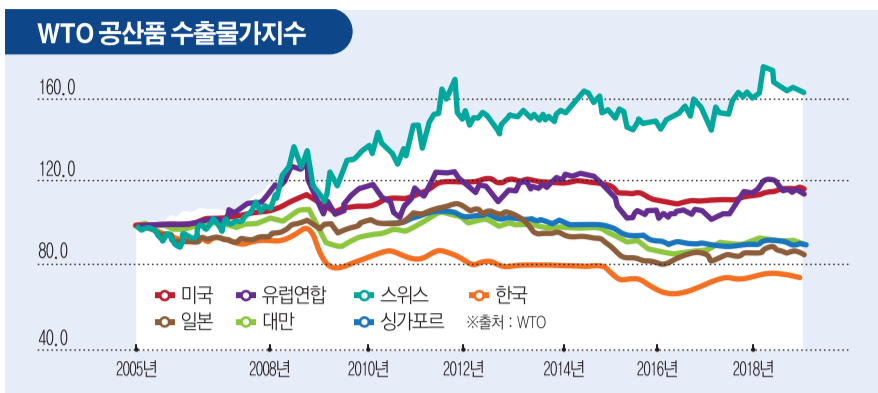
美·EU보다 40P↓ ... 수출품 대외 요인 취약해 가격 변동 큰 탓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수 끌어내려... 석화·철강·車 등도 고전

주요 제조업 수출 국가 중 한국의 수출 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에 비해 40포인트(P) 낮고,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서도 17P가량 떨어진다. 우리 수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세계무역기구(WTO) '월별 공산품 수출·수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물가지수는 2018년 11월 73.6이다. 미국 117.3, 캐나다 117.7, EU 115.0, 스위스 164.2, 일본 86.0, 대만 90.3, 싱가포르 90.3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WTO는

세계 제조업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이들 9개 국가·지역의 수출물가지수를 달러화 기준으로 집계한다. 2005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각국의 수출물가지수를 100으로 설정한 뒤 매달 증감률을 반영한다. 2005년 2월에 수출물가지수가 전월(100) 대비 10% 하락했으면 2월 지수는 90이고, 10% 상승하면 110이 된다. 3월엔 2월과 비교해 계산을 한다.

2005년 1월 100에서 시작해 'U' 자를 보인 한국 수출물가지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0대로 떨어졌다. 이후 세계 경기 회복세와 함께 반등했지만, 80대



에 머물렀다. 2015~2016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60대까지 하락한 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초호황기와 유가 상승 등의 덕분에 상승 흐름을 탔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등은

탄탄한 수출물가지수를 유지하고 있고 대만과 싱가포르도 우리와 비교하면 양호하다. 중국은 마지막 집계인 2012년 10월 132.8을 기록했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 높은 수출가격을 중국의 경쟁력과 바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다.

100 이상 지수를 보인 국가들은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거나 수출 가격이 높은 품목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물가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선진국 품목보다 대외 요인에 취약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2017~2018년 초호황기를 누렸지만, 그전엔 등락을 반복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내리고 있다. 유가가 가격을 좌우하는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셰일 가스 등으로 인해 하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철강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자동차도 독일, 일본 등보다 가격이 낮고, 비싼 전기차와 SUV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수출물가지수 하락 요인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반도체 경기 하강에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 수출 '장기 불황 악몽' 되살아나나

2015~2016년 19개월 연속 감소 세계경기 둔화·국제 유가 하락 모멘텀 부재 등 당시 상황과 비슷

지난해 12월 시작된 수출 부진이 이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경기 하강 등 대내외 악재에다 설 연휴에 따라 조업일수가 줄어들어서다.

수출 부진을 만회할 모멘텀이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 자칫 장기 불황이 나타난 2015~2016년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3일(2월 4~6일) 줄었다. 설 연휴가 있었던 작년 2월과 비교해 조업일수가 하루 더 짧다. 정부 관계자는 "조업일수가 하루 줄면 수출이 22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면서 "반도체 경기 하강과 국제유가 하락, 세계경제 둔화, 마·중 무역분쟁 여파 속에 조업일수 감소 악재가 더해진 이달 수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달 수출이 전년보다 줄면 35개월 만에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작년 12월과 1월 수출은 반도체(D램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 석유화학(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등 주력품목 부진과 세계경제 둔화 여파로 전년에 비해 각각 1.2%, 5.8% 줄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3개월째 이

어지는 등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결론이 날 미국의 수입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도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의 수출 부진이 수출 불황이 극심했던 2015~2016년과 비슷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시 세계경제 둔화와 유가하락, 자동차업계 파업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의 대내외 악재가 우리 수출을 짓눌렀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수출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의 부재가 수출 부진 장기화의 주요인이었다. 3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현재 상황도 상승 모멘텀이 마땅히 없다는 점에서 2015~2016년 때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와 2015~2016년에는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마·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하강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출이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제고를 이끌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휘발유 가격 14주 연속 하락 10일 서울 은평구의 한 셀프 주유소 앞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0.7원 내린 1344원으로 집계돼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알뜰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전주보다 0.5원 내린 1316.6원과 1215.8원에 판매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 실업난에... 지난달 구직급여 6256억 '최대'

46만6000명 신청 작년비 15%↑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규모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 원으로, 작년 1월(4509억 원)보다 38.8%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8월의 6158억 원을 넘어선 규모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 6만 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한 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자는 46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1000명(15.1%)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12.7%)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4900명이 늘었고, 서비스업(2500명)과 제조업(25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달 1330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 명(3.9%) 증가했다. 2012년 2월 이후 83개월 만에 5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1월보다 47만6000명 늘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해외IB, 韓 성장률 2.5%로 낮춰... "수출·투자 부진 우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낮췄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에서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전망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9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연 2.5%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내려갔다. 크레디트스위스가 2.4%, 바클레이스와 UBS는 각각 2.5%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는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노무라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68.5%) 등 자본재 수입(-21.3%)이 감소해 앞으로 기업 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IB들은 또 재정 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사정 악화와 반도체 경기 하강, 무역분쟁 영향 등에 따라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IB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애초 연 2.8%에서 작년 9월 2.7%, 11월 2.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 또 낮아진 것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 2.6%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 이 '희귀 동전' 몸값 아시나요?

올 설 연휴 동안 기자가 고향집에서 한 일 중 하나는 동전을 모아놓은 접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황금돼지 해라는 2019년 기해년 때문인지 불현듯 몇몇 연도에 발행한 동전은 몇백만 원까지 호가한다는 세간의 풍문이 떠올라서다.

동전들 사이에서 1970년 발행한 10원짜리부터, 2007년 화동옥선에서 12만 원에 팔렸다는 1971년 100원짜리 동전, 20만~30만 원을 호가했다는 1974년 발행 100원, 1982년 최초 발행한 500원 동전 등 소위 희귀 동전들을 찾을 수 있었다.

희귀 동전 중 가장 귀하신 몸은 1998

1998년 500원, 100만원 낙찰

1974년 100원, 30만원 판매

1970년 10원도 귀한 대접

년 발행한 500원짜리 동전. 실제 경매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로 일반인 대상 발행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해외 홍보용 주화세트로만 일부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이다. 7000~8000개 정도가 제작됐다고 추정한다.

1970년 10원도 귀한 대접을 받는 동

전이다. 적동색과 황동색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구리와 니켈 합금 등 함량이 조금 다른 적동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 밖에도 1966년 10원, 1972년 50원, 1970년 100원, 1982년 500원도 각각 해당 화종의 최초 발행 연도 동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희귀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며 "일시적으로 함량이 조금 다르게 나온 1970년 10원 적동도 양이 많지 않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신한과 오렌지라이프가 만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렌지라이프와 손잡고  
국내 최대 금융으로 도약하는 신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금융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겠습니다

# Hope. Together.

함께 만드는 따뜻한 금융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다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 헐값 된 철강·대두...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보호무역에 주요 상품 공급과잉... 글로벌 디플레 압력 커져 美·中 정상회담 불발로 합의 안갯속... 경기침체 이어질 수도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받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한 중국의 생산억제정책 후퇴와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에서 비롯된 다른 국가들의 수출 감소 등으로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이 경종을 울렸다.

철강은 물론 섬유 연료와 대두 등에서도 공급과잉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대두 등 상품 가격이 침체돼 대공황이 일어났다. 만일 지금의 글로벌 무역긴장이 더욱 악화하면 많은 상품 가격이 하락해 경기침체를 초래할 리스크가 커진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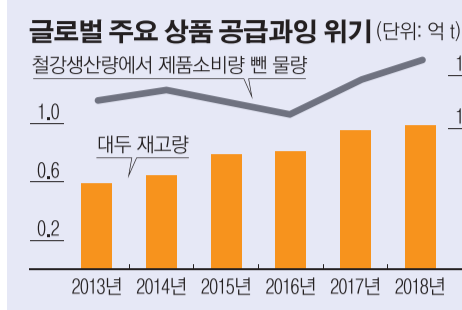
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3월 1일 마감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대표단이 14~15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지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미·중 무역 전쟁은 물론 새로운 관세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 백악관에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90일 안에 유럽연합(EU) 등에 새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무역긴장 영향으로 산업 자재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에서 가전제품과 전자재 주요 재



료 중 하나인 열연코일의 대아시아 수출 가격은 현재 1t당 550달러 안팎으로, 600달러 이상이었던 지난해 가을과 비교하면 10% 이상 싸졌다. 그 배경에는 중국제의 가격 하락이 있다. 중국산 열연코일은 지난해 하순 시점에 가격이 t당 467달러 전후로, 지난해 여름에 비해 20% 이상 낮아졌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등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악화 불안에 중국 내 설비투자도 둔화했다. 이는 세계적인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글로벌 철강 소비가

전년보다 1.4% 늘어난 16억8120만 t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3.9%를 밀도는 것이다.

지난해 글로벌 철강생산량은 제품소비량보다 1억5000만 t 많았다. 이는 2017년보다 12% 늘어난 것이며 최근 저점인 2016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섬유 연료 카프로락탐 대아시아 수출 가격은 지난해 말 t당 1670달러로, 전월 대비 약 15% 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 의류 수요 감소 전망이 주요 원인이다. 대두도 과잉공급이 우려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지난해 4분기)

## 타타車, 4.2兆 손실... 印 상장사 사상 최대 적자

### 자회사 英 재규어 실적부진 원인

타타자동차(이하 타타차)가 자회사인 영국 재규어랜드로버(JLR)의 실적 부진에 인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타타차는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약 37억9000만 달러(약 4조 2600억 원)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타타차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지난 분기 적자 규모는 인도 상장사 역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에 타타차 주가는 이날 장중

최대 30% 폭락한 끝에 18%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FT는 타타차가 기록한 장중 하락폭은 1993년 2월 이후 26년 만에 가장 컸다고 전했다.

타타차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원흉은 JLR였다. JLR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중국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31억 파운드를 상각 처리해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34억 파운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JLR 사상 최대 규모 적자다. JLR는 상각 처리분을 제외하면 순손실은 2억7300만 파운드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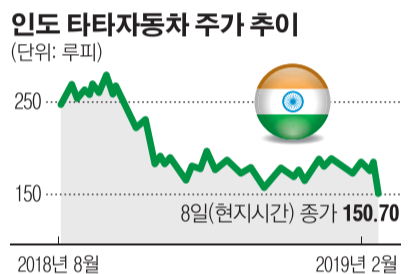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등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지난

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차 판매가 감소했다. JLR는 1월 중국시장 신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하는 등 올해도 부진하게 출발했다.

또 독일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로 유럽 내 디젤 차량 판매가 줄어들면서 디젤 차종이 주력인 JLR가 타격을 받게 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도 JLR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영국 자동차 수출에서 EU 시장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타차는 2008년 미국 포드로부터 23억 달러에 영국 럭셔리 자동차의 상징 중 하나인 JLR를 인수했다. 국민차



프로젝트 '나노(Nano)'가 실패로 끝나고 상용차 부문에서 경쟁이 극심해진 가운데 JLR는 그동안 타타차 실적을 지탱했던 핵심이었다.

이전까지 JLR는 타타차 영업이익의 약 80%를 차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브렉시트 혼란이 JLR를 물론 인도 모회사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타타차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아마존, 제2본사 철회 검토 뉴욕주지사 나서 "안돼" 읍소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이 제2본사 중 한 곳을 뉴욕에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지역 일각의 반대 여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아마존에 읍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으로 영합해 진정한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망하게 하려는 이 같은 어리석은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들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뉴욕 경제를 다각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직 월가와 금융업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아마존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소유주인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아마존이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본사를 건설하는 계획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 지난해 11월 퀸스와 함께 제2본사 부지로 선정한 수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내셔널랜딩 지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뉴욕에서는 임대료 급등과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을 우려해 제2본사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아마존이 뉴욕 제2본사 건설을 철회하려 하자 쿠오모 주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아마존은 제2본사가 들어설 뉴욕과 버지니아주에 앞으로 10년간 각각 25억 달러(약 2조8100억 원)를 투자해 2만5000개씩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퀸스가 지역구인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의 원에게 아마존과의 계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제2본사 건설 조건으로 뉴욕이 막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굿네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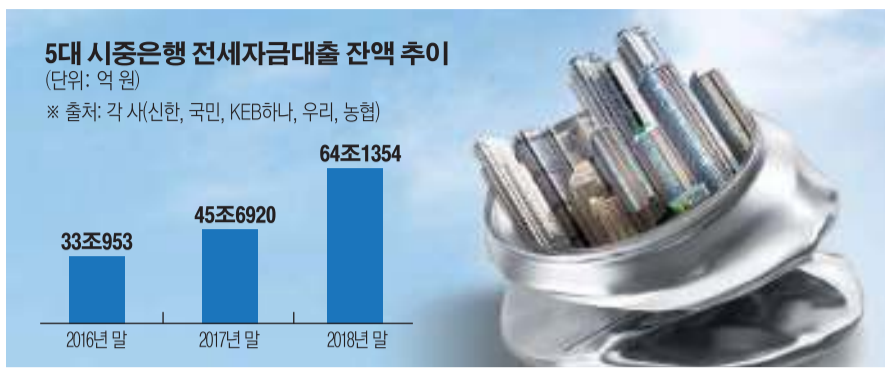
# 당국, '강통전세' 선제 대응... 경매 유예기간 연장 검토

### 전세자금대출, 규제 '무풍지대' 잔액 2년새 2배 늘어난 64兆

### 집값 하락 지역 실태조사 착수 역전세 대출상품 등 대책 모색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한풀 꺾였다.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난'과 '강통전세'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등 비상카드를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4조2835억 원으로 집계



됐다. 전월 대비 증가율(2.1%)은 2017년 5월(1.9%)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작년 10월 3.0%, 11월과 12월 모두 2.7%로 집계돼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자금대출은 그간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한 덕분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6년 12월 33조953억 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작년 말 64조1354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2017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적용됐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신(新)DTI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규제 여파와 함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전셋값은 2.4%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은 세입자 피해나 92조3000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문제는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조사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져 지난달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내렸다. 전셋값의 급격한 하락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불러온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에 모자란 '강통전세'가 나타날 우려도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에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으로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및 세입자 피해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매 유예기간 연장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값·전셋값 하락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집을 담보로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상품 출시,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보험·펀드, 실질 수익률 확인 쉬워진다

### 금감원, 금융상품 공통지표 도입 수수료·해지 환급금 등 비교 가능 업계 "설계사 영업 어려워질 것"

금융감독원이 보험과 연금저축 등 6개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는 보험 상품 이용 시 수익률 대신 적립률을 수익 지표로 사용하고, 변액보험의 경우 해당 펀드 수익률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이런 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소비자 중심 실질수익률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실행안 설명을 맡은 민봉기 영업행위감독조정 팀장은 "(수익률이) 금융사 위주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로서는 접근하기 어렵다"며 실행 배경을 설명했다. 민 팀장은 이어 변액보험과 관련해 "변액보험

의 경우 펀드수익률을 알려주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본인(변액보험)의 수익률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통지표 중심의 표준 상품 수익률 요약서 제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금융상품의 비교를 쉽게 하도록 서식과 내용이 표준화된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상품 수익률 요약서를 도입한다. 공통 지표에는 납입원금과 비용, 수수료, 평가금액, 누적·연평균 수익률, 해지 환급금 등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금융상품 공시사이트도 표준 요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실질수익률 명사로 '손해 아닌 손해'를 볼 전망이다. 보험 상품은 고객 원금을 100% 적립 또는 투자(변액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초기에 설계사 수당과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제하고 운영된다. 이를 실질수익률로 환산해 상품운용 보고서에 명시할 경우 가입 초기 '마이너

스' 수익률 명시는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손해 볼 것은 없다"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이고, 자꾸 민원이 생겼었는데 뒤늦게 보완하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고객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고객 설명 부담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영업하는 설계사의 경우 영업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비와 각종 비용이 명확히 드러나면 고객에게 설명할 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실질수익률 제공 적용 대상 상품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연금저축,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등 6개다. 이번 방안은 올해 말 기준 운용실적 보고서 부터 적용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기준금리 인하 땐 대출 질 저하 통화정책, 금융 안정 고려해야

한국은행 금리인하는 은행 대출의 양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도 떨어뜨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시 금융안정 요인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소 김의진 부연구위원과 정호성 연구위원이 공동 발표한 'BOK경제연구, 은행의 수익 및 자산구조를 반영한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가 1.6%포인트 하락(표준편차 1단위)할 경우 은행 위험가중치는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은행 위험가중치 표준편차가 11.8%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부문 위험가중치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

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일부로, 바젤은 행감독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감독당국이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즉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BIS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다만 은행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높으면 위험가중치 상승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75분위인 NIM 2.9%, 은행과 25분위인 NIM 1.9%를 비교해 위험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4%와 1.0% 상승했다. 즉, NIM이 높은 은행의 경우 CD91일물 금리가 1.6%포인트 하락 하더라도 위험가중치 상승폭을 0.6%포인트 낮춘 것이다. 김의진 한은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시 위험선호 경로상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www.douzone.com

# 올 A+ 회계프로그램

##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권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b>데이터 유출 방지</b>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b>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b>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b>편의성스마트워크</b>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b>IT관리비용 절감</b>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정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면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 중에 밀린 TV·멕시코에 치인 車...조선, 10년 전으로 후퇴

한국 경제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휘청이고 있다. 구조조정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업의 생산능력은 10년이나 후퇴했다.

전자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치킨게임'에 나선 중국이 매섭게 제품별 1위를 채가고 있으며, 고임금과 저효율에 발목 잡힌 자동차 산업은 3년 연속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능력이 역주행한 조선업도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 TV와 스마트폰 시장서 치킨게임=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LCD TV 출하 대수(3분기 누적 기준)는 총 1억5216만5000대에 달했다.

출하국 기준으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31.9%(4856만1000여대)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4658만4000여대(30.6%)로 뒤를 이었고, 3위는 일본(2218만9000여대·14.6%)이었다. 2017년에 점유율 27.2%였던 중국은 1년 만에 34.7%까지 시장을 잠식했다.

## 흔들리는 한국 주력산업

### 중 전자업계 본격 치킨게임

### 스마트폰 등 中시장 거의 놓쳐 자동차 '고비용·저효율' 발목 선박 생산능력, 작년 17% 하락

차이가 근소하지만 중국이 LCD TV 출하 대수에서 한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올라섰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웠던 LCD TV 시장에서 단가 인하를 앞세운 중국이 본격적인 '치킨게임'에 나섰다.

스마트폰 산업에도 위기감이 감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수출액(부분품 포함)은 146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3.2% 줄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의 최저 수준이자 2016년(300억3000만 달러)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0.8%로 사상 처음으로 1%를 밑돌았다. 2013년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던 건 추억이 됐다. 그나마 TV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QLED와 OLED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정도가 위안이다.

◇글로벌 7위로 또 떨어진 車산업=지난해 우리 자동차 생산량은 10대 생산국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20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준 지 2년 만에 다시 멕시코에도 밀려 세계 7위까지 내려앉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02만9000여 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406만9000여 대에서 411만 대로 1.0% 증가했다. 멕시코는 거대 시장 미국을 겨머졌지만 우리는 중국시장을 사실상 놓쳤기 때문이다.

한국차의 글로벌 비중도 4.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올해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대차그룹 산하 글로벌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자동차 시장은 반대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요인으로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등이 고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의 환경규제,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도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혁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10년 전으로 후퇴한 조선업=지난해 우리 조선업 생산능력도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능력지수는 69.2로 전년(83.4) 대비 17.0% 하락했다. 통계

집계(1981년) 이후 낙폭으로는 최대치다. 생산능력지수는 인력과 설비, 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 직전 3년간 유조선·컨테이너선·화물선 등 조선업 품목의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이 지수가 2015년 이후 4년째 뒷걸음질치면서 10년 전인 2007년(71.4)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그나마 지난해 가동률지수가 71.5를 기록, 전년(70.7)보다 소폭 올랐다는 점에서 희망은 보인다. 2015년 이후 3년 만의 상승 전환인데,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미약하나 생산 효율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박·보트 건조업의 생산능력 감소에는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 등 최근 구조조정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과잉설비가 조정되면서 가동률 지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연구원이 8일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QLED 8K TV 핵심 기술 설명회'에서 8K TV의 화질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삼성전자 "TV 시장 정체가, 8K 초고화질 승부"

### QLED 8K TV 비전 발표 한중희 사장 "프리미엄 수요 꾸준" 4K 때도 시장 전망치 뛰어넘어

삼성전자가 QLED 8K TV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TV 시장 부진을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4K 대비 4배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8K TV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긍정적이다.

한중희(사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 QLED 8K 핵심 기술 설명회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QLED 8K TV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TV 시장은 최근 정체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TV 출하량은 2014년 2억4392만 대에서 2017년 2억1696만 대로 줄며 최근 4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TV 시장 불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QLED 8K TV를 성장전략으로 삼은 배경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좋은 화질의 TV를 선호하는 고객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사장은 "작년 11월 국내에 삼성전자의 8K TV가 출시됐다. 이후 국내 대형 TV 시장 절반은 8K TV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8K 콘텐츠 부족으로 8K TV 판매량이 부진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종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2013년 4K UHD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시장 전망치는 50만 대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그해 4K TV는 200만 대 팔렸고, 작년에는 1억 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4K를 출

시했을 때 콘텐츠도 없고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데 누가 사겠느냐고 회의적 반응이 많았지만, 현재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8K도 4K와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공개된 바 있는 2019년형 QLED 8K TV를 선보이기도 했다.

신제품은 시야각과 정면 보정용 이미지를 혼합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워드 렌더링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장착해 시야각을 대폭 개선했다. 또 고화질, 고용량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HDMI 2.1 규격을 장착해 8K 해상도의 영상을 초당 60 프레임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한다.

2019년형 QLED 8K TV는 12월부터 지역별로 개최되는 거래선 초청 행사인 '삼성포럼'을 통해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세계 8위'

### 올해 10만 대 넘어설 듯 코나 등 SUV 모델 선전

현대·기아자동차의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일반판매(2012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 세일즈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국내·외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 판매는 총 9만860대에 달했다. 독일 폭스바겐(8만2685대)까지 제치고 제조사 순위 8위에 오른 것이다. 9위와 10위였던 미국 GM과 일본 토요타는 지난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는 2017년(4만7000여 대)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고, 2016년(1만3000여대)과 비교하면 7배 수준으로 솟구쳤다. 전기차 판매가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도 2012년 전기차 일반 판매 이후 처음이다.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한 데는 △현대차 코나EV △기아차 니로EV 등 SUV 기반 신형 전기차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나EV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2만2787대가 팔려 현대·기아차 전기차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렸다. 기아차의 니로EV도 7362대가 팔렸다. 이 같은 추세라면 현대·기아차의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세대 쏘울 부스터 EV와 뉴 아이오닉 EV 등 신차 2종도 판매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는 24만 5240대를 기록한 테슬라가 차지했다.

3위는 르노-닛산(19만2711대), 5위는 BMW(14만2217대), 8위 현대·기아차, 9위 폭스바겐 순이었다. 나머지 톱 10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LG '인도 최대 축제' 가전 제공

LG전자가 인도 최대 축제에서 깨끗한 물과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LG전자는 1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순례 축제인 '쿰브 멜라(Kumbh Mela)'에 정수기 45대, 세탁기 12대 등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쿰브 멜라는 힌디어로 '주전자 축제'란 뜻으로 성스러운 강물에서 목욕함으로써 죄를 정화하는 의

식이다.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42일간 열리는 행사에 1억5000만 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 있는 미아보호소 15곳에 정수기를 3대씩 설치했다. 길을 잃은 어린이나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들에게 물을 제공한다. 인도에서는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큰 선행으로 생각한다. LG전자는 미아 방지를 손목밴드 10만 개를 별도로 준비해 어린이는 물론 노인에게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연료펌프 점유율〉

# 세계 1위 '대화연료펌프'도 결국 무너졌다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에 연구소까지 세웠지만  
갑작스러운 철수 여파 부도  
"정부 방관에 더 이상 못버텨  
협력업체 80여 곳 살길 막막"



대화연료펌프 생산공장에서 2013년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시 밀린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굴지의 국내 연료펌프 업체로 탄탄대로를 걸었던 (주)대화연료펌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 차를 버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됐다. 개성공단 생산이 막혀 국내의 사업장 가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끝내 수억 원대의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일손을 놓게 됐다.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대화연료펌프가 1일 은행권의 대금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 결국 7일자로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 명단에 포함됐다. 당좌거래정지는 곧 최종 부도를 말한 다. 대화연료펌프 측은 당좌거래 정지 이후 며칠간 은행권과 동료 사업자에게 자금 수혈을 요청하고, 계열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

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후 대화연료펌프 측은 송도 공장 및 계열사 동산 등을 담보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 조정 절차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된다.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동욱 대화연료펌프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이처럼 처참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호소하고 있

다.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지은 탓에 3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자 결국 대화연료펌프의 근간마저 무너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책임자회의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유 회장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 3년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어렵게 버텨오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며 "본사는 그렇다 치고 협력업체가 80여 군데나 되는데, 당장 그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유 회장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개

성공단 입주업체가 123개나 되고, 그 협력업체만 6000~7000여 개가 된다"며 "통일부가 이걸 아는지, 소위 '윗분'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대화연료펌프는 198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체로 2005년 개성공단에 진출했다. 창업주인 유 회장은 1980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할 당시 기계식 연료펌프 국산화에 도전했고, 이후 창업에 나서며 1988년 연료펌프 국산화에 성공한 뒤 사명을 대화연료펌프로 바꿨다.

대화연료펌프는 연료펌프 세계시장 점유율 30%로 1위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400억 원을 넘겼고, 수출 비중이 80%에 달한다. 부도 전까지 미국 GM, 포드, 일본 토요타 등 10여 개 브랜드별로 제품을 생산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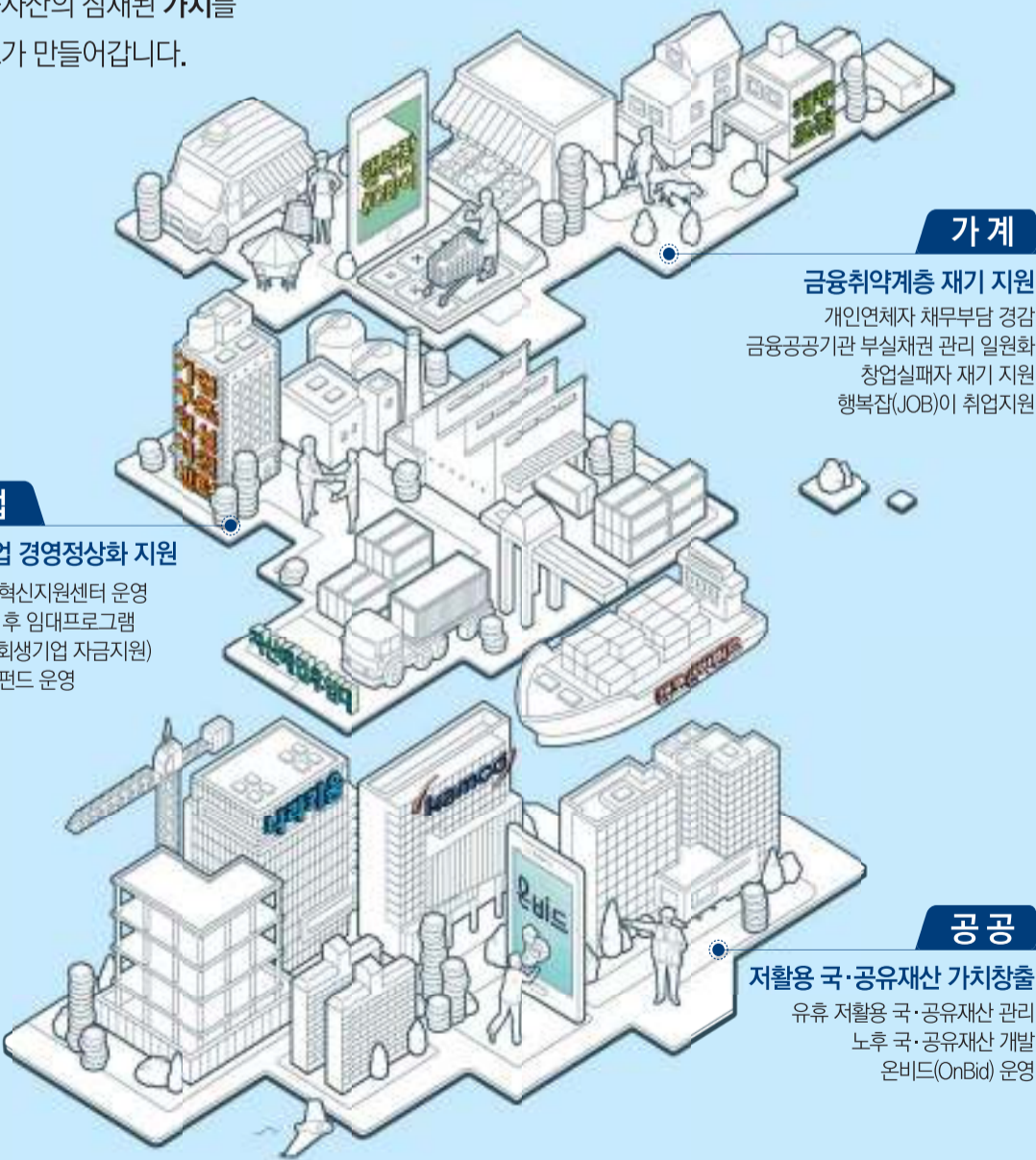
대화연료펌프는 개성공단에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세웠다. 연구소까지 세운 업체는 입주기업 가운데 유일했다. 가동 중단 후 개성공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 송도 공장도 인도네시아 공장 확장 공사에 들어갔다. 주력 제품인 연료펌프 60%, 오일필터류 80%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개성공단 철수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해외 거래업체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는 개성공단 중단이 부른 처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동 중단 3년이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며 "정부가 북-미 협상 타탄 할 게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살길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이 8일 금강산에서 열린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 정몽헌 회장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아산

## "금강산 관광 재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北 정몽헌 추모비 앞 창립기념식  
"정상회담에 북측도 기대 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은 9일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9일 말했다.

배 사장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후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이 자리에서 '방북 중에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 사장은 "북측이나 저희 모두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과의 추

가 접촉 계획과 관련해서도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이후에 필요하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사장은 또 금강산 현지의 관광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관광 노정 등 기본 시설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10년 이상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은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창립 20주년(2월 5일)을 맞아 8일 북한 금강산에 있는 고(故) 정몽헌 회장 추모비 앞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 뒤 이날 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금강산 구룡연 코스도 시찰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창순 서기장 등 북측 관계자 10여 명도 참석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기아차, 英 자동차 판매 9위 톱10 중 나홀로 3% 성장세

기아자동차가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혼란 속에 있는 영국에서 판매 실적과 평가 모두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내 신차 판매 대수는 236만7147대로 전년(254만617대) 대비 6.8% 감소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9만5764대를 팔아 전체 9위에, 현대차는 8만9925대를 판매해 '톱 10'에 올랐다. 포드가 25만4822대로 1위를, 폴크스바겐과 폭스홀이 각각 20만3133대와 17만7298대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해 영국 내 자동차 판

매 톱 10에 오른 메이커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차의 전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은 2.7% 증가했다. 1위인 포드는 판매량이 무려 11.6% 감소했고, 폴크스바겐과 폭스홀 역시 2.6%와 9.1% 줄었다.

기아차의 선전은 다른 메이커들이 투자나 신차 투입을 주저하는 사이 스포티지와 씨드 등 현지 전략 차종을 꾸준히 투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아차의 니로 전기차(EV)는 최근 영국 자동차 전문매체 왓카(The What Car?)가 주최하는 '2019 왓카 어워드'에서 영국의 재규어 E-페이스(pace)를 제치고 '올해의 차'로 뽑혔다. 1978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왓카 어워드'에서 현지에 생산공장이 없는 아시아 메이커가 '올해의 차'를 받은 것은 기아차가 처음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글로벌 경쟁 뒤처진 韓카풀, 네거티브 규제 필요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 ⑩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대표

차량공유 서비스의 인기에 가속이 붙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와중에도 연일 새로운 카풀 어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하고 있다. 관건은 차별화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소구점이 없이 살아남기란 불가능해졌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카풀 앱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우는 특징점이 명확하다. 이달 출시 예정인 '어디고'도 마찬가지다. 어디고는 관심사, 성향 등을 교류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내세운다. 동시에 여성 이용자는 여성 드라이버와 매칭할 수 있는 옵션도 선보인다. 어디고의 운영사인 위츠모빌리티를 이끄는 문성훈(43) 대표는 브레이크 없이 성장하는 카풀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어디고 서비스에 관한 자신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10일 문 대표를 서울 강남구 공유오피스에서 만나 구체적 전략을 들어봤다.

문 대표는 카풀 사업의 첫발을 미국에서 뒀다. 2016년 미국 법인을 설립해 2017년 7월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위해 얻어야 하는 라이선스를 미국 교통국으로부터 취득했다. 불법 택시가 성행하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풀 서비스를 기획했다. 한국인 기사 200여 명도 섭외를 끝냈다.

미국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문 대표가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건 역설적이게도 한

국 모빌리티 시장이 황무지인 탓이었다. 그는 "2017년 가을을 지나면서 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며 "인구 1000만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 외에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해 법인 설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처음에 구상했던 모델은 카풀이 아니었다. 승차공유와 대리운전 모델을 결합한 서비스를 구상했던 문 대표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카풀로 가기로 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풀'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연일 나오면서 카풀 서비스에 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 오히려 잘됐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강남에서 서비스할 예정인 어디고는 이용자와 기사 간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용자와 운전자가 최대 다섯 가지 키워드를 관심사로 등록해 서로 말문을 트기 쉽게 한 것이다. 물론 이용자가 기사와 대화를 원치 않으면 따로 옵션을 설정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미국에서 론칭을 준비했던 만큼 문 대표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과 국외 시장을 날카롭게 비교했다. 예컨대 미국 LA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가 웃만큼이나 필수적인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똑똑한 소비자로 인식된다. 문 대표는



문성훈 위츠모빌리티 대표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어디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 '증차규제' 없애자 택배시장 성장...소비자 니즈, 성장 방향 결정 차공유 시장 커지지만 정부 규제에 대기업 해외 투자로 눈 돌려 관심사·성향 기반 네트워킹 카풀 '어디고' 국내 출시 후 美공략

"요즘 LA 공항으로 갈 때 자기 차를 갖고 이동한다고 하면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이미 늦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큰 기업이지만 우버, 디디추싱 등에 비하는 작은 기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모든 산업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산업을 키우는 모습만 봐도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는 뜻"이라

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문 대표는 쿠팡의 '로켓배송' 예를 들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주문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2016년 정부가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택배차)에 대한 증차 규제를 없애기 전까지는 불법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12년 만에 이 규제를 폐지한 뒤 택배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문 대표는 "결국 소비자의 니즈가 시장의 성장 방향을 결정한다"며 "자동차

를 공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여타 벤처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방식을 뜻한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법에 사업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고 이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문 씨는 "포지티브 규제를 다 적용하면 20년 전에 한 번 허가받기만 하면 발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라고 분석했다.

게임빌과 모바일게임 업체인 엔소니의 대표를 지낸 문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계속 있었지만, 지금까지 안타까운 때도 없다"며 "공유경제는 국가 전략 산업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자가 다 외국으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이 그랩, 디디추싱 등에 거액을 투자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 대표는 아심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국내에 서비스 론칭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LA에서 사업을 먼저 준비한 만큼 미국으로 넘어갈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인 이용자를 타깃으로 미국에서 한국어 전용 서비스로 출시할 것이고 그 뒤에 중국어, 스페인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유료방송 2인자 올라선 LGU+ ... 섹범 바쁜 SKT·KT

LGU+ 이번주 'CJ헬로 인수' 최종결정... 공정위 심사 문제없을 듯  
시장 점유율 4위→2위 경충... 1위 KT계열과 격차 6%p로 좁혀  
SKT·KT 케이블TV 인수 가능성...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변수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CJ헬로 인수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번 합병으로 LG유플러스는 시장 4위에서 단숨에 2위로 올라서면서 유료방송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인수안을 최종 결정한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CJ헬로와 인수 합병(M&A) 협상을 진행해 왔다. 매각 금액을 두고 장고 끝에 최근 의견 조율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의 최대 주주는 53.92%를 보유한 CJENM으로, 이를 전량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최대 1조 원 규모다. 이는 3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검토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과 지배력전이 등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다만, 이번 M&A는 LG유플러스가 시장 4위인 만큼 시장 독과점 문제에서 자유롭다. 때문에 공정위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4.43%까지 올라 SK브로드밴드(13.97%)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선다. 1위인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 합계 30.86%)과도 6%포인트 차로 격차를 좁히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SK텔레콤과 KT의 케이블TV 인수전으로 달아올랐던 SK텔레콤도 회사사 SK브로드밴드와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케이블TV 업체와의 M&A를 모색 중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케이블TV 인수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박정호 SK텔

## LGU+, CJ헬로비전 인수 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순위	업체	점유율(%)
1	KT계열(KT+스카이라이프)	30.8
2	LG유플러스(4위) CJ헬로(3위)	11.4 13 (합계 24.4)
3	SK브로드밴드	13.9
4	티브로드	9.9
5	딜라이브	6.5

※출처: 과기정통부

레콤 사장은 지난달 4일 2019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케이블TV 인수 여부와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이 그룹 내 M&A 전문가로 통하는 점도 M&A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사장은 과거 도시바와 하이닉스 인수를 이끄는 등 굵직한 M&A를 성사시킨 바 있다.

KT도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인수를 검토 중이다. KT는 가입자 206만51명(6.45%)을 보유한 딜라이브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각각 660만 5107명(20.67%), 325만4877명(10.19%)으로 총 30.8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점유율은 37.31%로 올라가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와의 격차를 더 벌일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KT의 M&A 시장 합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합산 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현재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재도입이 확실시되면 KT의 케이블TV 인수는 물 건너간다.

KT 측과 딜라이브 등 케이블 TV 업체들은 합산 규제 재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발상인 데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독점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 규제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신임 사무총장 "싱크탱크 역할 강화"



김순철(사진) 신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10일 "재단을 상생협력 싱크탱크로 새롭게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1일 취임한 김 사무총장은 이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협력재단은 우선 대·중소기업·농어업 상생협력 플랫폼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싱크탱크(Think Tank)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공유제 확산 및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생경제 확산을 위해 이행실태 분석,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은행 연계 전자시스템도 구축한다.

협력재단은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화에 부응한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건설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수·위탁 거래 공정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 힘쓰기로 했다.

이 밖에 협력재단은 홈페이지를 고객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열린 경영을 통해 고객만족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 내일부터 中企중앙회장 선거 공개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개 토론회 개최를 알렸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제시한 공약들을 냉정하게 비교평가해 올바른 선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개 토론회는 지역 두 차례, 서울·수도권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개최된다. 공개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후

보자 소개와 각 후보자별 소견 발표, 토론 진행자(좌장)가 진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 공개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입 기자단 초청으로 진행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공개 토론회는 12일 대구 인터볼고호텔과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리며, 서울·수도권 공개 토론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신학기 준비 여기서”...유통가, 학생 모시기

유통업체가 신학기를 맞아 노트북, 컴퓨터, 유아동 가구,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할인 행사를 대거 마련했다. 패션업계는 신학기 가방 수요를 잡기 위해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신학기에 필요한 73만여 개 상품들을 모아 ‘2019 신학기 준비 테마관’을 열고, 3월 20일까지 운영한다. ‘노트북&PC’, ‘공부방&자취방’, ‘준비물&간식’, ‘참고서&필독도서’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표 상품으로는 HP 노트북 14-ck0088TU를 66만 원대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기적의 계산법 1학년 세트가 1만 2000원대, 소프시스 위더스 컴퓨터 책상은 3만9000원대다.

멀티숍 레스모아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학기 신상 페스티벌’을 열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 브랜드 신상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신발을 구매한 고객이 백팩을 추가로 구매하면 특정 상품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 슈즈 멀티스토어 ABC마트는 ‘새 학기 새 출발 굿스타트’ 행사를 28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진행한다. 교복을 착용하거나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신상품을 포함해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신학기를 맞아 노트북

쿠팡, 73만 개 상품 모아 편의성 ↑...레스모아 10% 할인  
가구·학용품·컴퓨터·책가방 등 신제품 출시 경쟁 치열



현대G&F ‘타미힐피자’ 신학기 책가방.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과 컴퓨터 라인을 강화했다.

패션업계도 분주하다. 한섬의 자회사인 현대G&F는 타미힐피자키즈 ‘스쿨 백 컬렉션’을 선보였다. 책가방 5종과 보조가방 2종으로 구성된 이 컬렉션은 보조가방을

4만8000원, 책가방을 10만5000~13만 5000원에 현대백화점과 H패션몰에서 판매한다.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신학기 가방 ‘에어 핏(AIR FIT)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 노스페이스 신학기 가방은 경량의 고강도 코듀라 원단 및 메시 원단 등을 적용해 무게를 줄이고, 인체공학적 설계(O.V.S. Optigrip strap & Ventilation System)를 통해 가방의 무게를 어깨 끈과 등판 전체로 분산시켜 준다.

NBA는 10대 학생들을 겨냥해 ‘노바 캐릭터 키링’을 더한 가방을 출시한다. 캐릭터 ‘노바’는 국내 NBA 리그 팬들이 ‘NBA’를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애칭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농구공 형태의 놀란 얼굴을 한 귀여운 캐릭터로, 가방에 인형을 달고 다니는 10대 감성에 맞춰 첫선을 보이게 됐다. 노바 키링이 달린 제품은 ‘팀 컬러 자수 백팩’, 시카고 볼스 빅로고를 전면 디자인한 ‘메시포켓 레더링 백팩’ 2종이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선보인 스마트 키즈백 3종 세트 ‘백투스쿨 컬렉션’은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이 무거운 책과 물품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린이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은 물론 남다른 요즘 아이들의 개성적 특징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네파 키즈는 호루라기를 부착한 ‘보디가드 백’을 선보였으며, 빈폴키즈는 무게를 줄인 ‘라이트 캐주얼 백팩’을 출시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분더숍 ‘케이스스터디’ 팝아트 협업제품 출시

올림피아 자그놀리 등 작품  
스니커즈·모자 등 13종에

신세계가 현대 미술을 담은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신세계는 분더숍의 스니커즈 편집 매장 ‘케이스스터디’가 스페인 신발 브랜드 아렐스(Arrels)와 손잡고 팝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CASESTUDY X ARRELS by European Artist’라는 주제로 말리카 파브르, 올림피아 자그놀리 등 세계적 작가들과 손잡은 이번 제품은 강렬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케이스스터디’는 최근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스니커즈와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 등을 보여주는 분더숍의 ‘숨인 숨’ 공간이다. 2017년 2월에 처음 오픈한 이후 다양한 협업 제품 등으로 이슈몰이를 했다.

팝아트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이번 제품은 스니커즈 6종, 티셔츠 5종, 모자 2종으로 가격은 각각 30만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다. 상품 기획부터 분더숍 바이어가 직접 참여한 총 13종의 제품들은 분더숍 청담에서만 3주간 한정 판매한다.

협업에 참여한 말리카 파브르는 런던과 바르셀로나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국적의 팝아티스트이다. 독특한 디자인과 스타일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낙천주의 일러스트 디자이너 올림피아 자그놀리는 뉴욕타임즈 등 유명 잡지 표지를 디자인한 작가로 유명하다. 유니크한 일러스트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프라다, 펜디, A.P.C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케이스스터디’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그림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손문국 신세계 상품본부장(부사장)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더숍에서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새롭게 선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분더숍만의 모던하고 혁신적인 이벤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핫&콜드 디저트·매장 조리 식품 강화

## 비밀병기 꺼내든 미니스톱 “즉석 먹거리로 지속 성장”

한국미니스톱이 매각을 철회하고 일본 이온그룹의 독자 운영으로 선회하면서 즉석식품을 비밀 병기로 꺼내 들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패스트푸드를 강화해 경쟁사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치킨, 소프트크림 등 패스트푸드와 디저트 메뉴에서 강점을 보여온 미니스톱은 앞으로도 중장기 성

추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매장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외식업계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한 도시락 전락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미니스톱의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봄, 여름 상품매장공부회’ 현장에서 소개된 개발 예정 메뉴들에서도 짐작된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메뉴, 패스트푸드점 수준의 햄버거 등



장 전략으로 핫&콜드 디저트를 비롯해 즉석식품, 매장 조리 식품 등의 메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는 최근 가맹점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푸드(FP) 상품을 통한 소비자들의 재구매, 재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점포 수익 향상 선순환의 시작”이라며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미니스톱의 인기 상품을 수입해 한국에 론칭하고 독자 상품을 통해 마니아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미니스톱의 본사인 일본 이온그룹 관계자 역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온그룹은 종전의 한국미니스톱 점포에 신선식품 전문 코너 등을

이색 메뉴들은 테스트를 거친 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공부회에서 소개된 새 메뉴는 대외비이며 재료 변동, 제조공장 등의 요인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니스톱이 지난해 10월 선보여 이미 판매 중인 소떡소떡 ‘소떡소떡’은 떡과 소시지가 꼬치에 차례로 꽂혀 있는 기존 제품과 달리 소시지를 떡으로 감싼 형태로 두툼하고 육질이 풍부한 소시지와 떡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일반 소떡소떡에 비해 중량을 높인 반면 가격(1800원)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사랑 키우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9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초콜릿 등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14일까지 국내외 유명 초콜릿 320여 종을 특별 혜택과 함께 판매한다. 2만5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마블 무류담요’ 증정 및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상품에 한해 ‘1+1, 2+1’ 행사도 진행한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 온라인 쇼핑, 모바일 비중 74%

이마트몰, 70%대 첫 돌파...40대 매출 38.1% 최대치

지난해 온라인 쇼핑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모바일 쇼핑 성장세의 일등 공신으로 떠올랐다.

이마트는 지난해 이마트몰 매출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73.9%를 기록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마트몰의 모바일 쇼핑 매출 비중은 2013년 8.5%에서 2014년 24.6%, 2015년 44%, 2016년 56%, 2017년 63.8%까지 급증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고 모바일에서는 추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의 주요 수단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시기에 20~



30대였던 ‘X세대(1968~1979년생)’가 40대로 접어들면서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마트몰의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20~30대의 비중은

감소한 데 비해 40대의 매출 비중은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2016년 35%였던 40대 매출 비중은 2018년 38.1%로 증가했다.

반면 20대 매출 비중은 8.4%에서 7%로 떨어졌다. 모바일 쇼핑의 최대 소비층인 30대의 매출 비중도 2016년 42.8%에서 2018년 42.4%로 소폭 감소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데 이어 30대 이하도 앞질렀다. 10~30대 매출 비중은 2016년 51.3%에서 2018년 49.5%로 줄었지만, 40대 이상 매출 비중은 48.7%에서 50.5%로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신선식품 매출 비중도 증가했다. 2014년 26.9%였던 이마트몰의 신선식품 매출 비중은 지난해 32.7%로 뛰었다.

김진설 이마트몰 마케팅팀장은 “기성세대의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의 주요 플랫폼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신선식품 등으로 쇼핑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디에스네트웍스, 토리스증권 임직원 3개월 고용계약 강요 논란에도

# 금감원 “우리 소관 아냐” 외면

노조 없어 진정서 제출했지만  
“인사 문제는 노동청이 살펴야”  
형식적 절차만 후속 조치 없어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반복 우려

토리스투자증권(이하 토리스증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관이 아니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의 ‘비정규직 감소’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로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지 1월 31일 1면 참조〉

◇금감원에 ‘3개월 계약’ 역올함 호소 = 이투데이는 지난달 30일 〈디에스네트웍스, 토리스증권 임직원 3개월 고용계약 강요 ‘논란’〉을 단독 보도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인 부동산 개발업체 디에스네트웍스(이하 디에스)가 작년 12월 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토리스증권 계약직 임원과 직원들에게 고용계약 만료 시점을 3월 31일로 못 박은 고용계약서를 강요했다는 내용

이다. 반발한 토리스증권 임직원 일부는 금감원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작년 10월 31일 토리스증권의 새 주인이 된 디에스가 손복호 토리스증권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을 앞세워 기존 직원들에게 3개월짜리 단기 고용계약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디에스에 대한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사 내부 상황을 일부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우리 소관 아냐”는 금감원… 형식적 대응만 = 주목할 대목은 금감원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진정서 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점이다. 디에스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나 고용 승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 전달이나 별도 후속 조치는 없었다. 접수된 민원이 어느 부서로 할당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중 자격요건에 대주주의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만 있을 뿐 고용 안정성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독당국에서 살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회사의 건전성 위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인사관리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이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출신 변호사는 “고용 안정성은 적격성 심사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금감원 검사권 안에 인사관리도 있어 그 부분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통상 인수합병 때는 회사의 영업조직 전체를 사들이겠다는 건데 이처럼 구조조정을 미리 전제한 경우가 없어 이전 사례들과 비교가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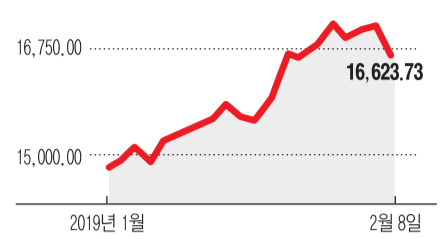
증권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토리스증권의 선례가 남겨질 경우 여타 증권사 M&A 과정에서 유사한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증권사 전문계약직의 경우 고액 연봉자라는 인식 때문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계약직원은 8299명에 달한다. 전체 직원수가 3만4251명인 점을 감안하면 4분의 1가량이 계약직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 코스피 수익률 1위 ‘전기·전자’

외인 순매수 영향 15.74% ↑  
기계·증권·운수장비 뒤이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15.74% 상승했다. 17개 주요 업종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7.33% 올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조3352억 원, 822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각각 15.8%, 21.5% 올랐다.

증권가는 지난해 4분기 증시 급락으로 주가가 싸진 점, 달러화 강세 완화, 반도체

모멘텀 회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려든 것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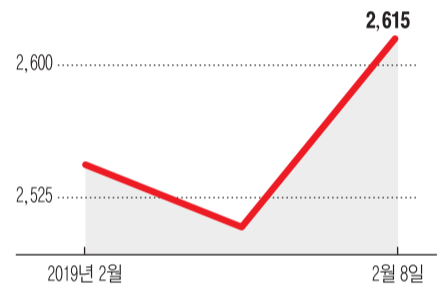
이어 한은시스템,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속한 기계 업종이 14.20%로 뒤를 이었다. 증권(9.51%), 운수장비(8.26%), 철강금속(7.70%), 건설(7.67%)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은행(-3.22%), 통신(-3.11%) 업종은 하락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업종도 작년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과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부담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자동제세동기 안전성 인정받고 성장 궤도”

##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씨유메디칼 주가 추이 (단위: 원)



씨유메디칼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에 이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주력 사업인 자동제세동기(AED) 부문이 순항한 데다 자회사 씨유헬스케어의 이익이 대폭 성장한 덕이다. 신사업 발굴에 주력해 성장궤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 주요 사업부는?

“핵심 사업인 응급의료기기 자동제세동기(AED)부와 애플 VAR(Value Added Reseller), 자회사 씨유헬스케어를 통한 병원경영지원서비스(MSO) 등이다. 주력 제품인 AED는 2002년 아시아 최초, 세계에선 여섯 번째로 개발한 제품이다. 의료장비 개발은 기술력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어 시판 후 평판이 중요하다. 판매 후에도 안전성을 인정받아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해 흑자전환 배경은?

“지난해 7월 자회사 씨유헬스케어를 설립해 신규사업에 진출했다. 자회사를 통해 병원경영지원서비스(MSO)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의료행위 이외 인력관리, 시설장비,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씨유헬스케어에서 남양주에 있는 병원을 인수한 후 본격적으로 MSO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 매출이 인식되면서 수익이 급증했다.”

- 애플 VAR사업은 뭐?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한 전 제품을 B2B(기업 간 거래)로 유통하고 있다. 애플 유통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의 절반 정도다. 별도의 유통 사업부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단순 유통을 넘어 애플 장비에 의료 기술을 접목해 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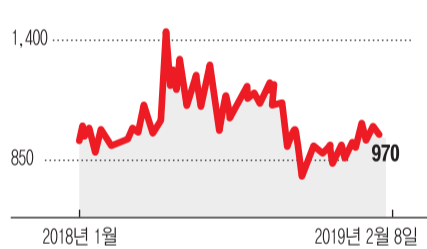
- 향후 신사업 계획은?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AED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업부 매출 가운데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최근엔 중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정희 기자 ljh@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따라하는 ‘성호전자’

오너 2세 소유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방식으로 회사 키워  
유증 통해 경영권 승계 마무리

성호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증자 대금이 7일 납입 완료되면서 박 대표의 지분은 종전 12.17%에서 10.75%로 내려가고 서용전자는 4.55%에서 11.94%로 늘어 단일 최대주주가 됐다. 주목할 대목은 성호전자의 최대주주가 된 서용전자의 주주와 매출 구성이다.

서용전자는 박 대표의 장남인 박성재 성호전자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박 부사장은 서용전자를 통한 간접 지배 외에 성호전자 지분 2.45%를 보유하고 있다. 서용전자 합산 지분은 14.39%로 사실상 이번 증자를 통해 오너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셈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서용전자는 2017년 11월 자본금 2억 원에 설립된 신생 업체다. 현재 성호전자의 손흥구 이사가 대표이사로, 박 부사장은 감사로 있다. 사업장 주소는 성호전자와 동일하다. 설립 이듬해인 작년 매출은 27억2000만 원, 순이익 9000만 원을 기록하며 설립 초기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성장 배경에는 성호전자의 일감 몰아주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용전자는 증자 결정 6개월간 성호전자와 8억9700만 원의 거래 내역이 있다. 또 증자 결정 이후 6개월간 거래가 예정된 매출 규모도 9억 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1년간 성호전자와 이뤄지는 매출 규모는 대략 18억 원이다. 서용전자가 작년 한 해 거둔 매출의 60%가 넘는 셈이다.

성호전자는 지난 증자 외에 서용전자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가로 진행했다. 신주 발행가는 기준 주가에서 10% 할인된 847원이며 59만319주가 새롭게 발행된다. 납입일은 11일이며 증자가 완료되면 오너 2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 펀드 시총 비중 ‘4.80%’ 2년8개월 만에 최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국내증시 전체 시가총액 대비 4.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2009년 9.67%까지 치솟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에는 3.90%까지 떨어지기도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외국인	개인
1위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2위	SK하이닉스	카카오
3위	삼성전자우	LG유플러스
4위	삼성SDI	아모레퍼시픽
5위	한국전력	SK텔레콤

※출처: 한국거래소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박스권을 탈출해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4.79%까지 올랐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2016년 말 7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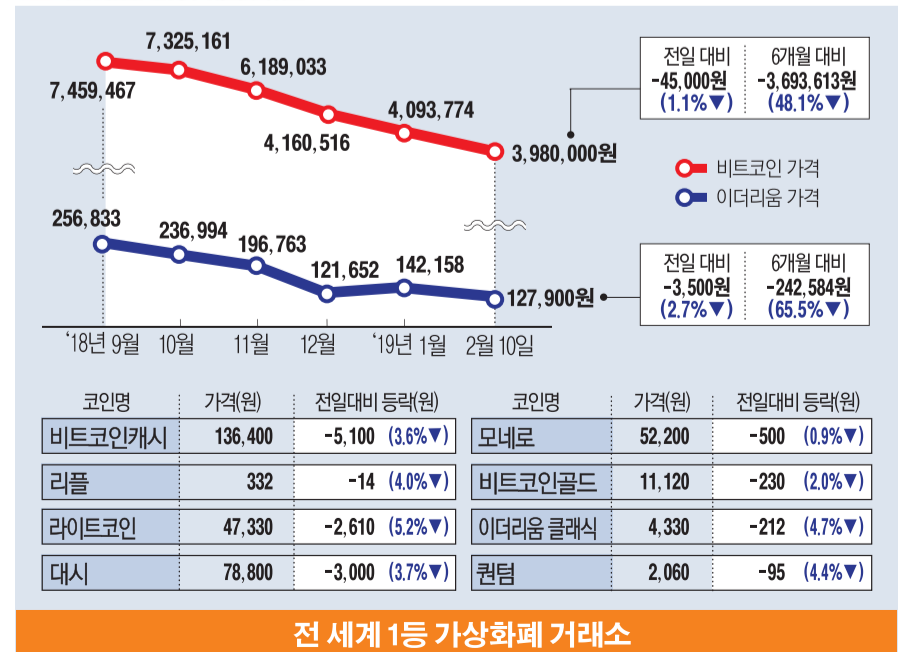
원에서 2017년 78조 원, 지난해 85조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펀드의 채권 편입 비중은 8.62%를 기록했다. 2016년 11.47%, 2017년 9.21%, 지난해 8.26%로 우하향 곡선을 그렸으나 올해는 다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국내 기업 실적 등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펀드도 이들 요인에 따라 자금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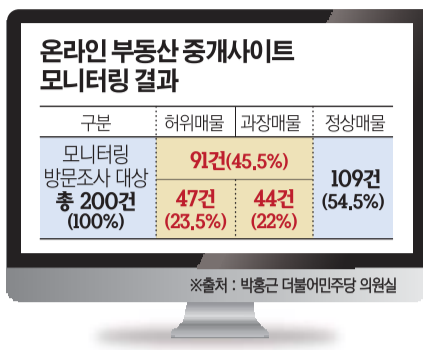
bithumb 빚뽀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2월 10일 17:00, KST)



# 온라인 부동산매물 절반이 '미끼'

광고 보고 방문하면 "거래 완료" 가격·옵션 등 과장 매물 많지만 과당경쟁·정부 규제 미흡 허위매물 경험자 신고 36% 그쳐



온라인에 올라온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 절반 가까이가 허위·과장매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 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체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 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

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 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꼽은 인원은 386명(77.2%), 중개사이트의 노력 부족이 279명(55.8%), 정부의 규제 미흡은 240명(48%)이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부의 관리 강화(337명, 67.4%) △사업자의 자정 노력(283명, 50.8%) △광고감시 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254명, 50.8%)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하락하는 서울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첫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떨어졌다. 뉴시스

## “현대건설 ‘그레이트 컴퍼니’ 박차 올해 영업이익 ‘1兆 클럽’ 재진입”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도로·교량 등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 합작투자사업)과 복합력률수력발전

현대건설은 치열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 역량을 갖춘 '2019 그레이트 컴퍼니(Great Company) 현대건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경쟁력 제고(Great People), 선진 기업문화 구축(Great Culture), 준법·투명경영(Great Value)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박동욱(사진) 현대건설 사장은 "그레이트 컴퍼니(Great Company)를 위한

### 해외사업·EPC 기본 역량 강화 도로·교량 등 투자사업도 확대

인적 경쟁력 제고(Great People), 선진 기업문화 구축(Great Culture), 준법·투명경영(Great Value) 등으로 핵심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 가치를 우선 시 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 진정한 건설명가(名家)로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해외사업 부문에서 시장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우위공종 집중 △포드폴리오 다양화 △투자사업 확대 △전략적 제휴 등으로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술·수행 경쟁력 등 EPC 기본 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공사를 수주하며 시장 신뢰를 유지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미분양·미계약 '선착순 분양' 사라진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도입 입주자 사전예약·사후추가 접수 미분양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미분양·미계약 분양물량에 적용했던 선착순 분양을 앞으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사전예약 및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일반분양 후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사업 주체가 선착순 분양 등 임의로 추가 분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된다. 9·13 대책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아파트투유가 제공하는 '무순위 청약(가칭)' 업무는 세 가지다.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다.

사전예약접수는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한 사전 접수를 말한다. 사후추가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

가로 접수를 시행하는 것이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한 후 다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신청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사전예약접수와 사후추가접수다. 사전예약접수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영업일 동안 실시한다. 추첨일은 일반분양 계약체결이 끝나고 10일 후이다. 다만 일반분양이 잔여물량 없이 완료된 경우에는 추첨하지 않는다.

사후추가접수는 일반분양이 마무리된 이후 별도로 사후추가접수를 공고한다. 접수기간은 사후추가접수 공고일이 5일 지난 시점에 1~2일간 실시된다. 사후추가접수 시행은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 방식대로 임의공급(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잔여물량이 20가구 미만일 경우 지자체에서 사후추가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전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신청자의 조건은 성년자, 해당 광역권 거주자.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집을 갖고 있어도 사전예약접수 또는 사후추가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분양에 당첨된 신청인은 사후추가접수를 할 수 없다. 사전예약접수를 한 상황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될 경우 추후 진행하는 잔여물량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취소주택은 일반분양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흘러야 확인할 수 있는 물량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나서 최대 1~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주체가 매 분기말에 계약취소주택을 취득한 후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및 추첨을 실시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 자격은 성년자, 해당 광역권 거주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금주의 분양캘린더

2월 둘째 주에는 분양시장이 재개하는 분위기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주에는 경기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센트럴푸르지오' 등 3개 사업

장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대왕아너스' 등 9개 단지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빌리브스카이',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만도유보라' 등 17개 단지에서 계약이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9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크',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대왕아너스' 등이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7곳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3-A6(행복주택)', 인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늄부평', 강원 춘천시 운의동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대구 중구 동문동 '현대엔빌중앙로역' 등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2/11 (월)	발표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양천구	신정동	신정3-A6(행복주택) (~2/15)		
	계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2-14(행복주택) (~2/15)		
			은평구	진관동	은평중주거2(행복주택) (~2/15) ♣		
		경북	영주시	가흥동	영주가흥더리브스위트홈 (~2/13)		
		제주	제주시	영평동	효성해링턴코트제주 (~2/13)		
	발표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비스타동원		
			광산구	흑석동	수안센트럴시티서히스타힐스		
			남원시	월락동	남원월락해드레베스티움		
계약	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5차(EAA5) (~2/14)			
			화성시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6차(EAA12) (~2/14)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5차(EAA5) (~2/14)		
2/12 (화)	계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늄부평 (~2/14)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만도유보라 (~2/14)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동도의(국민임대) (~2/15)	
		발표	대구	중구	동문동	현대엔빌중앙로역 ♣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만성에코1단지(공공임대)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빌리브스카이 (~2/15)
	계약	강원	춘천시	운의동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2/15)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센트럴파크
				대구	중구	동문동	현대엔빌중앙로역 ♣
	발표	경남	창원시	경화동	창원경화베스티움 (~2/16)		
				경남	창원시	경화동	창원경화베스티움 (~2/16)
				경남	창원시	경화동	창원경화베스티움 (~2/16)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 '40돌' 대명그룹 "올해 글로벌 리조트 도약 원년"

홍천 비발디파크서 비전 선포식 반려동물 관련 토털 서비스 추진

"굳건한 대명그룹이 있기까지는 모든 임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다시 한 번 변신을 시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겠습니다."

대명그룹이 7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이어질 100년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11일 밝혔다.

창립 40주년 비전 선포식은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이 직접 주재했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별 미션과 비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 △신규 산업 진출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서준혁 대명그룹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어 대명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명호텔앤리조트의 글로벌 체인화 방안과 반려동물 사업을 설명하고 향후 40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서 부회장은 "올해는 대명호텔앤리조트가 글로벌 체인 호텔&리조트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펫팜족 100만 시대가 열린 만큼 펫 호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대법 “미신고 외환거래, 1회 10억 넘어야 처벌”

## 美 대사관 앞 불법집회 시민단체 대표 유죄 확정

###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판단 법망 피한 ‘조개기 방식’ 거래는 고의성 밝혀야 형사처벌 가능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은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거래(송·수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망을 피하려고 거래금액을 고의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조개기 방식’이 아니라면 누적 총액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정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수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 수입자의 주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점을 악용해 2016~2017년 수차례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일종인 예금거래에 대해 개별금액이 처벌 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지만, 이를 합산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정 씨의 사기 대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을 합산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을 형사처벌할 경우 종전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금액이 누적돼 처벌 대상이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31회에 걸쳐 50만~4억2000만 원의 금액을 거래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의 일정 거래금액을 합해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효진 기자 js62@



윤한덕 센터장 눈물의 영결식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10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에 참석, 고인의 영정 앞에서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주에 155만원 vs 2500만원...16배 차이 ‘금수저’ 산후조리원 뭐가 다르길래...

### 서울시, 이용요금 현황 공개

서울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2주에 최저 155만 원에서 최고 25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16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2월 현재 ‘서울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휴업기관을 포함해 서울시 145개 산후조리원 전체의 이용요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강남구 A산후조리원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2주 특실요금은 2500만 원, 일반요금은 1000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 비쌌다. 강남구

B산후조리원과 C산후조리원도 2주 특실요금이 2000만 원이었다. 이용가가 1000만~1500만 원 비용이 필요한 산후조리원도 7곳에 달했다. 강남과 송파에 위치한 산후조리원들이었다.

최저 요금은 강서구 D산후조리원으로 2주 일반요금이 155만 원이었다. 강동구 E산후조리원은 170만 원, 노원구 F산후조리원은 175만 원으로 나타났다. 190만~198만 원인 5곳까지 포함해 2주 이용가가 100만 원대인 산후조리원은 총 8곳으로 조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가 16배 차이를 기록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일반요금의 70%는 2주 이용가가 200만~300만 원

대에서 형성됐다. 특실 이용가도 200만~300만 원대가 60%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65%가 일반실과 특실을 차등 운영하고 있었다. 400만~2000만 원까지 고액 이용가로 이른바 ‘VIP 영업’을 하는 곳이 37곳으로 조사됐다. 이용가가 2000만 원대인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 이용 안내를 ‘VVIP’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전체 산후조리원 이용가를 한데 모아놓았다”며 “시가 이용요금 책정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비교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

### 대법 “안전 침해 위험 명백”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여) 씨와 회원 김모(45)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30m 지점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기능·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1심은 당시 이들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체포돼 해산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경찰이 있었다고 해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軍 댕글공작’ 김관진 檢, 1심 징역7년 구형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가구, 빌려주세요”... 자원 낭비 꼬리표 떼는 이케아

## 글로벌 ‘쓰레기 경제학’

세계 최대 가구유통업체 스웨덴 이케아가 친환경 사업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케아는 제품 임대와 재활용 등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서클러 이코노미(Circular Economy·순환경제)’ 시동을 걸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이전에 이케아에서 ‘서클러(Circular·순환)’는 고객들이 자사 매장을 방문해 곳곳을 둘러보면서 사고자 했던 제품 이외 다른 마음에 드는 가구도 구매하는 것을 뜻했다.

이제 이케아는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등을 결합해 서클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케아는 이달 스위스에서 시범적으로 사무용 가구와 주방 시스템 임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구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서 이후에 부담 없이 버리는 이케아의 현 사업모델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이케아 가구는 대를 물려가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

“막 사서 쓰고 버리는 패스트 가구” 소비자 반발에 사업모델 전면교체 이달부터 ‘가구 임대 서비스’ 실시 ‘서클러 이코노미’로 그린슈머 공략

트패션 의류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처럼 막 사서 쓰는 제품이였다.

그러나 환경보호가 지구촌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많이 팔수록 좋은 것’이라는 소비자 기업들의 전략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판매할수록 사용 기간은 짧아지고 그만큼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매년 약 1000억 벌의 의류가 생산된다. 이는 전 세계 인구 한 명당 14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서클러 이코노미 운동을 선도하는 엘런 맥아더재단은 막대한 생산과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 한 명당 10t에 달하는 원자재가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14%만이 재



활용을 위해 수집되나 실제로 재사용되는 것은 이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그친다.

이케아가 이런 과도한 자원 낭비를 막고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서클러 이코노미’ 사업모델에서 고객들이 가구를 임대해서 쓰다가 새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이케아가 기존 가구를 수선해 다른 고객에게 대여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다.

이케아 브랜드를 소유한 인터이케아의 토르비에른 뢰외프 최고경영자(CEO)는

“사람들이 제품을 버리는 대신 조금 수선해 다시 팔면 제품 수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며 “가구 임대사업 시범 서비스는 가구를 새로운 아이টে็ม으로 재생산하고 판매하는 우리의 서클러 이코노미 사업모델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서클러 이코노미를 위한 이케아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케아는 임대사업은 물론 고객들이 가구를 수리해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부품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이미 재활용 목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소과 설계를 변경해 안에 들어간 목재와 금속, 직물 등 다양한 재료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보다는 사용에 초점을 맞춘 사업모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교세라와 제록스는 프린터 임대사업을 펼친 지 오래다. 네덜란드 카펫 제조업체 데소는 사무실용 카펫 임대·정소·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를 3~4년씩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가구와 같은 내구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FT는 강조했다. 이렇게 서클러 이코노미가 정착하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제품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수입 안 해” 쓰레기통 담은 중국에 “다시 쓰자” 순환경제 문 연 지구촌

‘서클러 이코노미(순환경제)’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도의 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자국 제조업체들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에서 폐자원을 수입해 재활용했다. 그러나 집권 27째를 맞은 시진핑 정권이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2017년 말부터 쓰레기 수입을 전격 금지하면서 쓰레기 수출국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말부터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8개 품목과 분류 안 된 폐지, 섬유계 폐기물 11개 품목, 버려진 철강용 첨가제 4개 품목 등 총 2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원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게 된 것이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주요 수출처는 중국에서 동남아로 바뀌었다. 국제재활용기구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자원 쓰레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외에 인도에서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폐기물 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것과 중국과 가깝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대량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불법으로 수입되거나 부적절한 처리로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1200t과 5100t의 불법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거부당해 이달 초 되돌려보내지는 사태가 빚어

졌다. 문제의 업체는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했지만 막상 확인된 건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 등으로 판명, 필리핀과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베트남도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자원 쓰레기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태국은 작년 6월 전자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수입된 쓰레기를 수출국으로 되돌려보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헤드폰 제조회사 제라드 스트리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중고 헤드폰 1만5000t이 버려진다는 점에 주목, 내구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쉽게 분해할 수 있게 조립해 부품의 85%를 신제품에 재활용하고 있다.

영국 스타트업 벨스앤베이브스는 의류 렌탈 서비스를 통해 섬유 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 달에 일정액을 내면 입던 옷을 새 옷으로 교환해주고, 반환된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이다.

서클러 이코노미 역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방한다. 서클러 이코노미 운동을 선도하는 엘런맥아더재단은 구글, 나이키, 유니레버, 르노 등 글로벌 기업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메이크 패션 서클러’ 캠페인에는 버버리, 겐, H&M 등도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의 환경보호단체 스테이트오브그린의 핀 모텐센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누군가에게 자원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게임 제작 장인들 의기투합... '제2 배그 신화' 쓴다



⑤ 크래프톤



2007년 3월 '블루홀스튜디오' 설립

2008년 10월 복미 법인 '블루홀인터랙티브' 설립

2011년 1월 PC MMORPG '테라' 국내 정식 서비스

## 개성 강한 개발사 모여 노하우·성과 공유 시너지

### '따로 또 함께' 성장

현재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프톤은 2007년 3월 '블루홀스튜디오'로 처음 설립됐다. 당시에는 장병규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50여 명이 뿔뿔 뿔쳐 '전에 없던 게임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의기투합했다.

설립 이듬해인 2008년 10월에는 미국 시애틀에 복미 법인 '블루홀인터랙티브'를 설립했다. 창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내다본 장병규 의장의 결정이었다. 블루홀인터랙티브는 이후 '엔매스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서구 시장 공략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크래프톤의 과거 대표 게임은 4년간 개발한 끝에 선보인 PCMMORPG '테라'였다. 2011년 1월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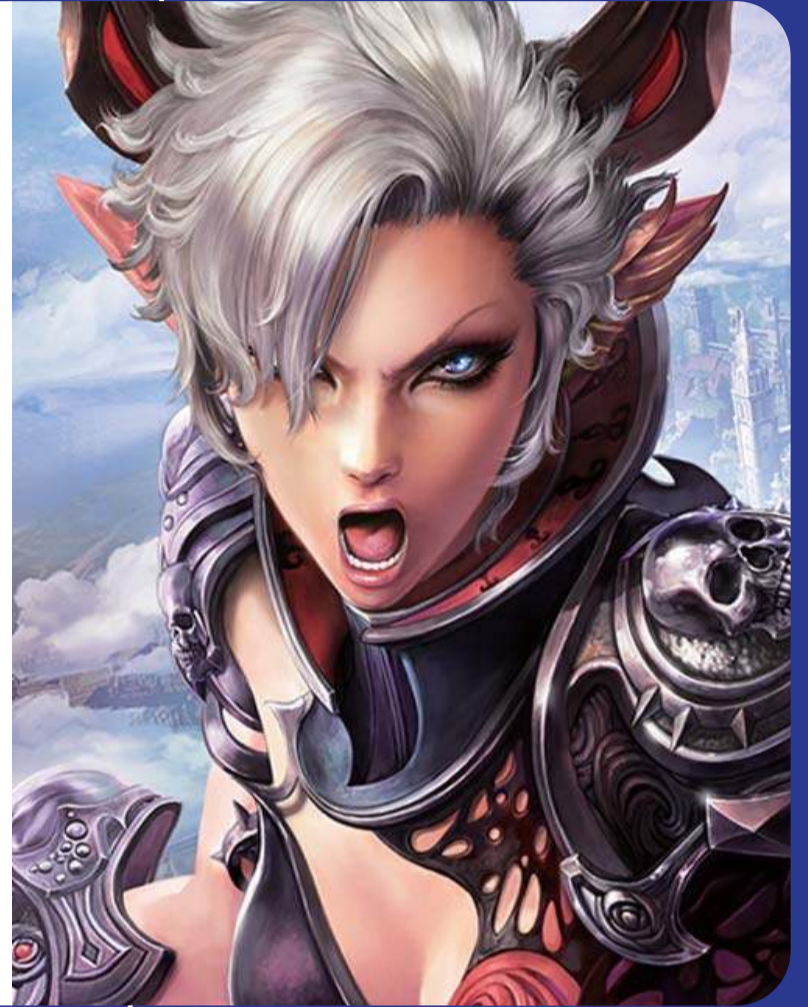
2007년 '블루홀스튜디오' 설립 4년간 공들인 '테라' 흥행 돌풍 2015년 개발사 4곳 인수하며 게임제작 연합으로 성공적 전환

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프리타기팅' 전투 시스템을 채용해 20만 명이 넘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테라는 국내 게임업계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다. 테라는 '2011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출시한 해 8월에 글로벌 진출을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과 북미, 러시아, 일본, 유럽, 대만, 태국 등 7개국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2015년에는 복미 출시 3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대 PC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도 론칭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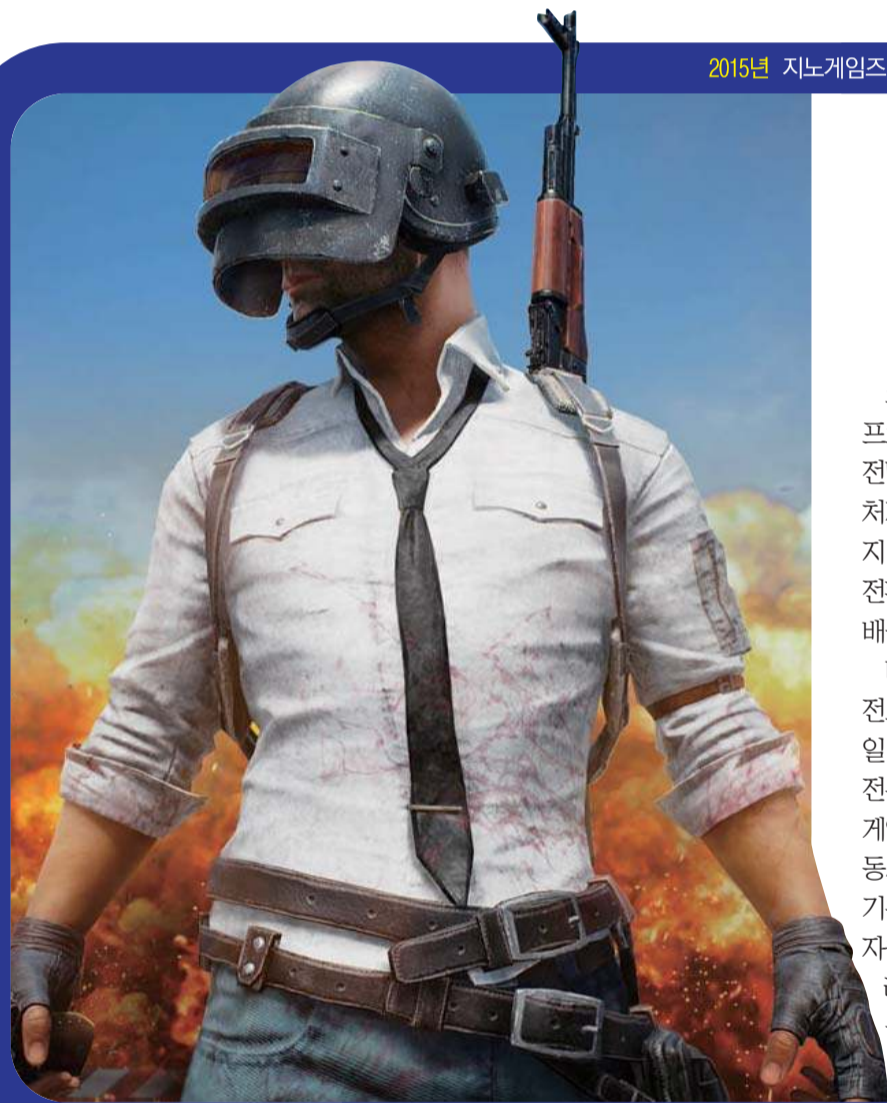
크래프톤은 2015년 4개의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며 게임 제작 연합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서로 다른 개성의 개발사들이 연합해 다양한 게임을 만들며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257억 원에 인수한 곳이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당시 블루홀지노게임즈)였다.

크래프톤은 연합 체계에서 열정과 역량, 창의성을 지닌 제작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게임의 개발을 주도한다. 연합은 소속 개발사와 스튜디오들에 독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동시에 게임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각 스튜디오 혹은 팀과 공유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연합은 성공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더 큰 도전을 같이할 우수한 인재도 함께 확보한다. 다시 말해, '따로 또 함께'하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2015년 지노게임즈·퍼닉스게임즈·스콜·마우이게임즈 연합 합류

2015년 1월 '블루홀로 사명 변경'



2017년 12월 '배틀그라운드' 스팀 출시

## 정식 출시 한 달 만에 동시 접속자 320만명 달성

### '배그' 놀라운 흥행 기록

크래프톤은 연합의 게임을 제작하면서 프로젝트 실패 경험을 겪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런 실패가 계속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도전을 이어나가 2017년 전환점을 맞았다. 펍지주식회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덕분이다.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얼리엑세스 버전으로 스팀에 출시된 후 같은 해 12월 21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얼리엑세스 버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한 이 게임은 정식서비스 한 달 만에 스팀 최대 동시접속자 수 320만 명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당시 스팀에서 가장 많은 동시접속자를 달성한 게임으로 남아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또 '가장 빠르게 1억 달러 수익을 올린 스팀 얼리엑세스 게임'을 포함

'가장 빠르게 1억달러 수익' 등 기네스북 기록 7개 부문 등재 '2017 대한민국게임대상' 6관왕 글로벌 흥행에 매출 성장 가도

해 기네스북 세계 기록 7개 부문에 등재됐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해 총 6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배틀그라운드는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던 스팀의 플랫폼을 통해 출시한 것이 주효했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유저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클라우드 플랫폼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트랙픽에 대응했다. 이 외

에도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들을 마케팅 파트너로 활용해 인지도를 빠르게 확대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끌며 크래프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크게 성장시켰다.

크래프톤의 또 다른 연합군 '블루홀퍼닉스'가 2014년 선보인 '볼링킹'과 2016년 '아처리킹'은 현재까지 수천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약 9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높다. 이후에도 '미니골프킹'과 '월드사커킹' 등을 선보이며 모바일 캐주얼 게임 장르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쌓고 있다.

블루홀스쿨은 2017년 11월 테라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MMORPG '테라M'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다.

'볼링킹' '아처리킹' '테라M' 모바일 게임 사업에도 진출 새 기대작 MMORPG '에어' 개발 막바지 연내 공개테스트

의 콘솔 버전을 엑스박스원과 플레이스테이션4에 출시하고, 테라를 국내 MMORPG 가운데 최초로 콘솔로 이식해 북미, 유럽, 일본에 성공적으로 내놓는 등 콘솔 시장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 콘솔 영역에 대한 경험과 개발 역량을 쌓으며 더 큰 시장에 대한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특히 MMORPG '에어(A:IR, Ascent: Infinite Realm)'를 포함한 다양한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17'에서 처음 공개된 에어는 크래프톤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차기 기대작이다. 기계와 마법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스팀펍크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비행선과 탈것 등을 이용한 공중 전투 등이 특징이며 진영과 진영 사이의 싸움에도 특화돼 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다양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기대작으로 꼽고 있다.

에어는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국내 시장에 서비스된다. 이미 양 사는 배틀그라운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며 성공적인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에어는 2017년 CBT 이후 발생한 피드백을 개발에 적용해 현재 막바지 단계로 연내 공개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2018년 11월 '크래프톤'으로 사명 변경

## 배그·테라 등 대표게임 콘솔 이식 '새로운 도전'

### '게임 제작 명가' 도약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 연합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크래프톤에는 '게임 제작의 명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크래프톤이라는 이름은 중세 유럽 장인들의 연합 '크래프트 길드(Craft Guild)'에서 착안했다. 명작 게임 제작에 대한 장인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의 끊임없는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크래프톤의 로고는 장인 연합의 상징인 깃발 모양이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제작 라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크래프톤 이름 아래 연합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이제는 실시간이다!

## 증권사 실시간 수급 솔루션 **THE HINT**

‘더 힌트’는 실시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추적해  
종목을 포착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수급차트

종목진단

누적금액

누적강도

시장분석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은 기존 수수료율(0.014~0.5%) + 0.09%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당사의 공식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Hint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증권빅데이터투자연구소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수익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0473호(2019.01.28~2020.01.27) CC브랜드-180124-450

# “실물 없는 증권, 5년간 사회비용 9000억 감소”

## ‘전자증권 도입 진두지휘’ 예탁결제원 김정미 본부장

작년 2월 시스템 구축 착수 공정률 60%...9월 16일 ‘D데이’  
1991년 입사 첫 여성 부서장·임원 ‘완벽 디지털화 제2 도약’

“자고 일어나면 딱 9월 16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만큼 힘들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든다.”

김정미(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올해 예탁결제원에서 가장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김 본부장이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관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실물 증권에 수반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위변조 및 분실 위험이 제거되고 권리 행사 제약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5년간 누적 효과는 약 9045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1991년에 입사했는데 그때부터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을 준비했다”며 “30년간의 준비 과정이 이제 서야 빛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991년 예탁결제원(옛 한국대체결제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첫 여성 팀장을 거쳐 2007년 첫 여성 부서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에는 예탁원 최초로 여성 임원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증권대행부터 대차, 파생, 펀드, 조사개발, 고객 지원까지 각 부문을 두루 거치며 예탁결제원의 신사업을 개발, 정착시키는 일을 주로 해왔다. 김 본부장은 “처음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을 제안받았을 때는 부담스러웠지만 다양한 부서 경험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업무의 완벽한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탁결제원 차원에서도 제 2의 도약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전사의 역량과 관심이 집중된 사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서울과 부산으로 인력이 나뉘어 있어 TF를 꾸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며 “이해관계자가 많고, 제도 시행일에 무결점 시스

템을 완벽히 오픈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개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사업 공정 진척률이 60.7%에 달한다. 이달부터는 통합테스트(5개월)와 이행테스트(2.5개월)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무권화가 되려면 부동화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30년간 준비해 왔고, 계좌관리 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의 투티어(two-tier) 구조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를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새 전자증권제도 광고가 TV에 나오면 TF팀 직원 아이들이 ‘우리 아빠 훌륭한 일한다’고 말을 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힘들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완벽히 추진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소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래된 기자 yerin2837@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 김호일 무보 투자금융본부장 해양금융융합센터장에 취임

김호일 한국무역보협공사 투자금융본부장이 10일 해양금융융합센터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센터장은 무보 해외투자금융부장, 투자금융총괄실장 등을 지낸 투자 전문가다.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해양금융센터를 대표해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그는 “해양금융융합센터가 해양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해운사 선박 확충과 조선사 주주 가뭄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2014년 무보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 설립한 해양금융융합센터는 조선-해운 금융 전문 지원 기관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중앙대의료원 신임 병원장에 이한준 정형외과 교수 임명

중앙대학교의료원은 병원장에 정형외과 이한준(사진) 교수를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임 병원장에 임명된 이한준 교수는 1991년 중앙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중앙대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역임하고 현재 대한정형통증학회 학술위원,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심사위원·보급위원 등을 맡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지리산 오른 기아차 간부들 “쏘울 성공신화 이어가자”

광주공장 부서장 등 100여명, 비즈니스 목표 공감 결의대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간부들이 지리산에 올라 3세대 쏘울의 글로벌 명차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10일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 박래석 공장장과 부서장, 현장관리자 100여 명은 전날 전남 구례군 지리산 일원에서 ‘비즈니스 목표 공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리산 솔봉 전망대를 거치는 트래킹 코스를 돌며 3세대 쏘울 부스터(Booster)의 성공 신화 유지, 공장 내실

화 등을 다짐했다.

쏘울은 스포티지와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력 생산 차종이다. 기아차는 쏘울 양산에 들어간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공장에서만 171만2106대를 생산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생산량 15만6716대 가운데 98.3%인 15만4134대를 북미 등으로 수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단단하고 믿음직한 젊은 공장’을 올해 슬로건으로 내걸고 생



‘비즈니스 목표 공감 결의대회’에 참가한 기아차 광주공장 간부들이 지리산가족호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 혁신, 균등 품질, 최고 안전, 노사 신뢰 등을 실천 방안으로 설정했다.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관리자들

이 솔선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호성(왼쪽 세 번째)이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한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애런 로저스, 프로골퍼 제리 켈리, 영화배우 크리스 오도널(맨 왼쪽부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블비치(미국)/USA투데이스포츠연합뉴스

## ‘뉘시꾼 스윙’ 최호성, PGA투어 데뷔전서 컷 오프

3라운드 합계 9오버파...“다른 대회도 불러만 주면”

‘뉘시꾼 스윙’ 최호성(46)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전에서 컷 탈락했다.

최호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76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2개를 묶어 5오버파 77타를 쳤다.

사흘간 합계 9오버파 224타를 기록한 최호성은 출전 선수 156명 중 공동 138위에 머물며 컷 통과 기준인 3언더파에 미치지 못해 컷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그는 3라운드를 마치고 “다음 PGA 투어 대회”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어떤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러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독특한 스윙 동작으로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PGA 투어 대회 초청까지 받았으나 첫 대회에선 역시 만만치 않음을 실감했다.

최호성은 “많은 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린이 어려웠다. 특히 17번 홀에서 30~40cm 정도 되는 퍼트도 황당하게 가는 걸 보니 어렵더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관심과 응원을 한 몸에 받으며 인기를 체감한 그는 “오늘 손도 열고 콧물도 나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많은 팬분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좋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유정선 기자 dwt84@

## 추경석 前 건설교통부 장관 숙환으로 별세

추경석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11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추 전 장관은 독립유공자인고(故) 추규영 선생의 장남으로 부산 동래에서 출생해 경남과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후 1959년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거쳐 1991년 12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4년간 국세청장으로 재직했다. 이어 1995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매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과 청조근정훈장을 서훈받았고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욱이 본인이 받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을 모아 1995년부터 20여 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독립유공자 후손 228명에게 1억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수자 여사, 아들 추승우(스톤파인얼라이언스 이사) 씨와 3녀(재연, 재희, 희정)를 두고 있다. 사위는 첫째 김원욱(GE Power 기술총괄) 씨, 둘째 이지용(JRW대표) 씨, 셋째 강승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씨이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이고 발인은 13일 오전 7시이다.

뉴스

## 부음

### 日 ‘단카이 세대’ 명명한 작가 사카이야

일본에서 1947~1949년 1차 베이비붐 세대를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명명한 동명의 소설을 펴낸 작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太一)가 8일 다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전했다. 향년 83세.



본명이 이케구치 고타로(池口小太郎)인 고인은 작가이자 정부 각료 등으로 일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정치와 경제, 문예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했다. 오사카(大阪) 출신인 그는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1960년 당시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에 들어갔으며 1970년 개최된

오사카 국제박람회의 기획을 담당했다. 사카이야는 1998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으며, 2013년 이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내각 관방 참여(자문)로 임명되기도 했다.

▲주철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씨 별세, 주건형(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실장)·종문 씨 부친상 = 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5호실, 발인 11일, 02-2227-7500

▲함희주 씨 별세, 함승훈(거창국제학교 이사장)·은주·진숙·영옥·영숙·재병(자영업) 씨 부친상, 유선준(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기자) 씨 외조부상 = 9일, 경남 거창군 가조면 거창국제학교 학교장, 발인 11일, 055-943-5565

##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승희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전 김주영 ◇과장급 승진 △국방대학교 교육과전 류정길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 장인숙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단장급 △기술정책담당 문형돈 △정보통신기술사업단장 홍승표 △인재양성담당 신준우 △기반조성담당 최령 △감사실장 김기수 ◇팀장급

△기술개발평가총괄팀장 정은정 △정책기획팀장 임진국 △정보통신방송평가팀장 박준범 △중소기업개발팀장 정영선 △AI 기획팀장 박상욱 △SW·AI평가팀장 김남훈 △융합서비스평가팀장 박병주 △인재

기획팀장 임승호 △SW인력팀장 이승우 △기반인력팀장 김태형 △혁신인재팀장 민승현 △기반기획팀장 황호선 △기반확산팀장 송찬호 △기술사업화팀장 백혜원 △평가기획팀장 양기웅 △기획예산팀장 김상준 △총무회계팀장 박재현 △안전관

리팀장 김상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팀장급 전보 △생활환경기술팀장 전성원 △해외사업개발팀장 송기훈 △수출기업지원팀장 양재권 △연구단지기획팀장 손동업 △친환경

생활팀장 김홍석 △제품시험분석팀장 정진환 △제품사후관리팀장 유난미 △환경

피해대응팀장 권재섭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장 임현정 △시설총무TF 이현호 △연구단지운영관리TF 조주현 △제품순환·녹색건축TF 정유경

◆산은캐피탈 △부사장 전영삼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코딩 교육

얼핏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 체계가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초중고교의 교육 수요에 비해 전문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부실교육에 이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최근에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아닌 코딩을 포기한 '코포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장안의 화제였던 드라마 'SKY캐슬'이 종영되었다. 다양한 유행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경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초등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7시간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 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는데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심화선택과목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코딩 교육 강화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들이 대부분 코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미국과 같은 소프트웨어 강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코딩 교육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워싱턴을 비롯하여 텍사스 등에서 고등학교 제2외국어를 코딩 교육으로 대체하였다. 영국은 2014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가 중학교 정규 과정에 편입되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코딩 교육을 받고 있다.

코딩은 C언어를 비롯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우듯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운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컴퓨터 언어는 문법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구조는 유사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언어에 익숙해지면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초등학교 코딩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코딩하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코딩의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를 시작으로 논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바로 창의성 향상 교육인 셈이다.

사실 일반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C언어나 자바를 초등학교생들에게 이해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연간 17시간은 초등학교생이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국내 대학 교육은 어떻게? 대학은 일반적으로 초중고에 비해 교과과정 개편이 자율적인 편이라 KAIST를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이미 전교생에게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제반 기술 관련 과목들을 신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데이터 과학 학과, 블록체인 학과 등 특성과 전공 또는 특수대학원을 개설하고 있다.

MIT, 버클리, 카네기 멜론, 미시간 등 미국의 유명 대학들도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 교육을 일찌감치 시작하였다. 특히 MIT는 최근 AI칼리지를 만들어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들의 데이터 과학 교육은 단일 전공에 국한

하지 않고 컴퓨터, 경제, 통계, 예술, 문화 등의 융합 전공으로 진행하면서 전공 불문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얼핏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가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초중고교의 교육 수요에 비해 전문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부실교육에 이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최근에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아닌 코딩을 포기한 '코포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발 빠르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과목 또는 관련 특성화 전공을 개설했지만 강의를 담당할 전공자를 찾지 못하거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 간 융합 교육은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이 되는 효과적 교육을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 제러미 하이먼즈-헨리 팀스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 하비 와인스틴의 몰락이 보여주는 권력이동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책은 설득력이 있다. 전 세계 사회운동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조직 '퍼포스'의 창립자와 뉴욕의 비영리단체 '92번가 Y'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각을 담은 책을 내놓았다. 제러미 하이먼즈와 헨리 팀스의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은 연결된 세상에서 급속히 부상하는 '신권력' 문제를 다룬다. 그들은 '신권력'과 '구권력'이 부딪히고 견제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말한다.

그들에게 권력이란 버트런드 러셀이 정의한 '의도한 결과를 얻는 능력'이다. 그들은 기존의 권력을 구권력으로, 그리고 연결된 세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을 신권력으로 정의한다. 구권력은 화폐와 마찬가지로 소수만 지니고 있으면 배타적이며 상명하달식이고 쟁탈하는 힘이다.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권력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이다. 반면에 신권력은 일종의 흐름처럼 작동한다. 다수가 만들어내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동료 집단들이 주도한

다. 신권력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결집하는 일이다.

구권력과 신권력의 첨예한 대결은 영화계의 황제로 불렸던 하비 와인스틴의 몰락을 들 수 있다. 1966년부터 2016년까지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감사의 대상은 신과 와인스틴이 공동선두를 달릴 정도였다. 그가 제작한 영화 가운데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작이 무려 300개가 넘는다. 그는 독자적인 권력처럼 자신의 지위와 힘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트위터 '#미투'라는 해시태그에서 시작된 원인의 불꽃 같은 운동은 그를 몰락시켰다. 시작 단계에서 누구도 이 운동을 이끌지 않았고, 누구도 이 운동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미투'운동은 거대한 흐름처럼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구권력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슬로건과 사운드바이트(뉴스 인터뷰나 연설 등의 핵심 내용을 축약한 문구)다. 누군가

'기억에 남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베스 셀러 '스틱'의 저자인 히스 형제의 여섯 가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고, 뜻밖이고, 구체적이고, 믿음직스럽고, 감성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억에 남는 것을 넘어서 퍼뜨리기 좋은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을 더해야 한다.

신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ACE'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아이디어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하고(Actionable), 연결돼 있어야 하고(Connected) 그리고 확장 가능해야(Extensible)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인데, 저자는 "이 세 가지 원칙은 최근에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데 성공한 스타트업, 브랜드 구축, 광고 캠페인, 심지어 테러리즘 같은 수많은 사례에서 목격된다"고 설명한다.

과연 권력의 변신은 가능할까. 구권력에

서 신권력으로의 방향 전환은 가능한 것일까. 이 같은 일에서 극적 변화를 성공시킨 기업이 레고다. 레고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 레고 팬, 즉 'AFOL'를 염두에 두고 '레고 아이디어' 플랫폼을 기획한다. '대중이 레고 세트를 만드는 일을 시도한다'는 차세대 레고 모델을 크라우드 소싱하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는 신권력 공동체가 부상한 경우와 추락한 경우다. 우버와 리프트 사례는 실천에서 신권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분리된 개인에서 초연결된 대중으로 옮겨가는 시대 상황에서 에어비앤비와 힐튼을 비교한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거대한 변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부상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공병호연구소장

## 이투데이, 말투데이

### ☆ 토머스 에디슨 명언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모른 채 포기한 이들이다."

미국의 발명가인 그는 특허 수가 1000종을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했다. 그중 백열전구를 개선·발전시킨 생산법의 발명은 획기적이다. 전구실험 중에 발견한 '에디슨 효과'는 20세기에 들어와 열전자 현상으로 연구되고, 진공관에 응용되어 전자공업 발달의 바탕이 되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할 수 없는 몇 십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47~1931.

### ☆ 고사성어 / 강노지말(強弩之末)

강하게 날아간 화살도 멀리 날아가 끝에 이르러서는 비단 결 한 장 뚫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흉노족의 침공 대책을 묻자 어사대부(御史大夫) 한 안국(韓安國)이 무력 응징을 반대한 말에서 유래했다. "강한 쇠뇌에서 힘차게 나간 화살이라도 최후에는 힘이 떨어져 노(魯)나라에서 만든 얇은 비단조자 뽕을 수가 없습니다(強弩之末不能入魯縞).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한 군사력도 장도(長途)의 원정에는 여러모로 쇠퇴하는 법입니다."

### ☆ 시사상식 / 프로토타입(prototype)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려고 간단하게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로 시제품·검본품이라고도 한다.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생산에 들어가면 도중에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가난

'어려운 간(艱)'과 '어려운 난(難)'을 합친 한자어가 '가난'으로 발음이 바뀌었다.

### ☆ 유머 / 불구경

에디슨의 연구실에 불이나 연구자료들이 불탔다. 모두 우왕좌왕하자 에디슨이 아들에게 "어머니를 불러오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세상에 공짜로 이런 불구경을 어디에서 해 보겠니!"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반성한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된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을 단죄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기보다는 죄의 크기를 가늠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건만 "나는 죄가 없다"는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소환된 모 회사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조사실로 직행했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도망쳤나"라고 무심코 생각했다.

창피한 일이지만, 포토라인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1993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빛어진 몸싸움과 출

## 기자수첩



정수천 사회경제부/int1000@

## 포토라인, 알 권리와 인권침해 사이

혈 사태로 인해 포토라인이 탄생했음을 알지 못했다. 이 또한 반성한다.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포토라인'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을

뿐인 인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현대판 명성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이 소환된 피의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포토라인'을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기는 좋지 않다.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점철된 사법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논쟁인 탓이다. 그럼에도 포토라인에 대해 되짚어 볼 때인 것은 분명하다. 그간 언론이 포토라인의 순기능보다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켰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다만 무조건적 폐지로 몰고 가는 것은 선분은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질서 유지'를 지키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모을 때다.

대검찰청은 상반기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포토라인'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레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팩스	(02)799-1003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9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경제 정책에 대입된 증오의 방정식

증오는 격정(激情)적이다. 격정에는 한계가 없다. 증오 역시 끝을 보기 힘들다. 쓰면 쓸수록 더욱 거칠어진다.

증오는 심판으로 직결된다. 심판의 명분은 분노한 여론이다. 여론은 기술어진 심판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 여론은 공동체 전체의 합치된 의견이 아니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이해집단의 견해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중의 증오는 정치를 움직였다. 증오로 대업(大業)을 이룬 권력은 호승심(好勝心)에 취해 증오의 방정식을 경제에 대입(代入)했다.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대 99의 빈부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과장된 표현이다. 대선 기간 후보자의 입이나 혁명기에 나올 직한 구호가 현직 대통령의 일상적인 연설이 돼 버렸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부자들만 따먹고 있는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소신도 거침없이 드러낸다. 이 역시 과도한 정치적 수사를 동원한 ‘경제계층 편 가르기’다. 지지율 확보나 득표 활동일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정부의 언사가 될 수 없다.

이 정부는 스스로 과장된 경제 어젠다(agenda:주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찾으려 한다. 곳곳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다. 대표 솔루션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권 강화를 뼈대로 한다. 전(前) 정권에 대해 같이 증오하고 분노했던 지지자들을 달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 데스크칼럼



박성호  
산업부장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 정부는 소주성을 통해 원한에 찬 평등주의를 실현하려 애썼다. 하지만 소주성이 모래성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지표가 나왔다. 지난해 전 산업생산증가율은 2000년 지수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제조업생산능력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은 더 줄었다.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종의 명현현상(曠現現象) 정도로 치부한다.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8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이라는 홍보 영상과 문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고, 고용의 질은 개선됐으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0.6%포인트 상승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업률이 지난해 기준 3.8%로 2001년 이후 최고였으며, 한창 일할 30대와 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0~13% 줄어든 것은 외면했다.

‘역효과 현상(backfire effect)’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돼도 자신의 실수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애초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의도적인 무시다. 이는 최악의 거짓말과 동

의어다. 국가 권력은 이런 오류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설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각종 선심성 정책도 선한 의지만 가득한 불평등 해결책이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23개 지역 사업(24조 원 규모)에 대해 면제됐다. 대의명분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이를 놓고 과오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본은 이미 1987년 국토균형발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도시의 산업 도시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장기 불황으로 가는 실마리 중 하나를 제공했다.

설 연휴 직전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도 불안하다. ‘명절 밥상 민심’ 부여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경쟁력,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사기가 맞다고 하기 어렵다.

증오를 화합으로 보듬는 방법은 일방에 의해 강요되는 ‘정의’와 ‘평등’과 ‘균형’이 아니다. 다수의 요구와 소수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혜안(慧眼)이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보고, 듣기 싫은 말을 정성으로 듣는 것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정책 오류의 인정은 내면의 분노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를 참고 복기해야 한다. 잘못을 수정해야 분노가 수그러진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는 1999년 발간한 ‘일본은 왜 몰락하는가’란 책에서 2050년 일본 몰락을 점쳤다. 그는 몰락의 원인이 ‘정치’라고 단언했다. 한국 정치에는 과연 경제를 몰락에서 구해낼 저력이 있는 것일까. vicman1203@

## 사설

###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8일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13일과 18일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안 도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결국 18일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국회에 제출될 공산이 크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논의 결과만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매듭지으려다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렸지만 아무 성과도 없다.

문제는 또 국회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이 급한데, 국회는 지금 아예 폐업 상태다. 1월 임시국회는 공전했고, 2월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계속 파행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대치 중이다. 김태우·신재민 관련 특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

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을 놓고 어느 곳도 한 치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 등 지도부가 의원외교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0일 한꺼번에 미국으로 떠났다. 이달 중하순에도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하고, 국회 파행이 3월까지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은 3월 말로 끝난다.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창출을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등의 불인 노동 현안들의 국회 입법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이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만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 장효진의 이슈通



사회경제부 차장

### 양승태 재판, 법원 신뢰회복 마지막 기회

는 성공법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응 전략은 ‘모르쇠’였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선택은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적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대처는 자중수가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후배들이 한 일”,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17년 2월 한 판사가 낸 시작서였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가 1주일 만에 사표를 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김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법원행정처가 세 번의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의혹은 되레 커졌고, 사법 개혁에 대한 법원 안팎의 여론이 거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남은 것은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공방은 치열할 전망이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의 확정 판결은 일러도 내년 하반기에 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특별 재판부 설치의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발은 재판의 ‘공정성’이다. 김 대법원장이 말한 법관의 독립, 좋은 재판의 근원이자 버팀목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희망적인 점은 법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태권 전 검사장 등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법원은 두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유무죄를 떠나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민심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다. js62@



## 소설(小說) ①

교육부 혹은 각 지자체 교육청이 뽑은 청소년들의 필독서 목록에는 으레 ‘그리스 로마 신화’가 포함되곤 한다. 신화는 같은 비록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허황함에도 웬지 사실처럼 느껴지면서 큰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 신화의 매력이다. 이처럼 고대부터 인류의 상상을 자극하는 ‘이야기’인 신화가 발달했던 때문인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주변으로 범위를 넓혀간 유럽의 문학은 일찍부터 이야기가 있는 소설류가 발달하였다. 장·단편의 무수한 명작 소설과 셰익스피어의 희곡 등이 다 서양이 이른 ‘이야기’ 문학의 큰 성과이다.

중국에도 신화나 전설은 물론 인간의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도 처음부터 ‘소설(小說)’이라고 불렀다. ‘작을 소(小)’와 ‘이야기 설(說)’을 쓰는 소설은 문자 그대로 ‘작은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는 편편이 작다(적다)는 뜻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하찮은 이야기’라는 뜻을 더 많이 반영하여 만든 단어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소설이 ‘하찮은 이야기’로 치부된 까닭은 거의 전적으로 공자 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논어에는 “공자께서는 괴이한 것, 폭력적인 것, 음란하거나 문란한 것, 귀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子不語怪力亂神)”는 말이 있다.

공자는 이른바 ‘괴력난신(怪力亂神 괴이할 괴, 힘력, 어지러울 난, 귀신 신)’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히 호기심 강한 인간은 청자나 독자의 흥미를 보다 더 많이 끌기 위해 이야기의 강도(強度)를 점점 더 높임으로써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처럼 자극적인 이야기가 만연한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소설의 주요 주제인 괴력난신한 이야기를 공자가 사실상 금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소설이 경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계최초, 대한민국 5G시대 개막  
압도적 속도와 철저한 보안을 갖춘 5GX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